朝鮮日報
夕刊
九日(土)
本紙朝夕刊二十面
◆本社定期刊行物◆
朝光(月刊一回發行)
女性(同 上)
少年(同 上)

湖口漢口間戰區內 外國艦待避通達

今後激戰地는湖口上流八十哩間

遡江部隊作戰進展

及川司令官

【上海九日發同盟】我無敵艦隊의 揚子江遡航作戰은 모든 困難을 克服하고 驚異的戰果를 收하야 蕪湖湖口間의 揚子江을 完全히 征服하엿는데 다시 戰區는 逐次 擴大하야 이때문에 最近에는 湖口로부터 그上流 八十哩의 黃石港에 이르기까지의 戰區가 最激戰地로 豫期되게되엿다 어新戰區인 湖口로부터 黃石港에까지 이르는사이의 散泊中의 外國艦船에 對하야 及川支那方面 艦隊司令長官은 不慮의 災害를 防止하기 爲하야 그自主的 待避를 要請하엿는데 此旨를 九日 日高總領事로부터 關係各國 駐在官憲에 通達하엿다 右는 曩者蕪湖湖口間의 待避要求에 이어 第二次的 申入인데 關係國의 友好的 協力에依하야 不祥事件의 發生을 防止한 第一次的 申入과 同樣의 成果를 收하기를 期待한다

海軍當局談

【上海九日發同盟】及川支那方面艦隊司令官의 第三國艦船待避要求에 關하야 我在上海海軍當局은 今日如左한 談話를發表하엿다

海軍當局談=我揚子江遡江作戰의 進展에 伴하여 戰區는逐次擴大되여 湖口로부터 上流八十哩黃石港에이르는 區域은 더욱 激戰區域으로 되엿슴으로 當分間同區域의 第三國艦船의 自主的待避의要望을 今日 帝國總領事와 相議하고 關係各國에 通告하엿는데 이것은 다만 第三國艦船에 不慮의災害가 波及되는것을 極力防止하라고하는 我艦隊長官의 眞摯한 熱望일따름이며 列國은 前番에도 我方에 對하여 友好的協力을한것과가티 今次의我方申入에 對하여도 또한 반다시 互相間不愉快한 事件發生을防止하기爲하여 一層協力하여주리라고 確信하는바이다

曲沃附近에서 激戰

【曲沃八日發同盟】山西南部退兵을企圖하고曲沃東方五粁西陽村에 進出하야자조 我軍에게 挑戰하는 支那軍에 對하여 攻擊命令을바든 翼野部隊의 精銳는 四日未明 殷殷한砲兵의掩護砲擊下에 빨으게도 城壁二百米의地點에 進出、正面의 城壁에 銃眼을 만들어 그前方에 塹壕를파고 堅固한 要塞로되여잇는 敵陣으로부터 一齊히 射擊하는 機關銃 手榴彈을 무릅쓰고 我正確한 砲擊은 훌륭히 城壁의 一角에 突擊路를 만들엇다 渡邊隊長의 引率한 決死隊는 命令一下、敵彈을 무서하지안코 壯烈한 突擊戰을 始作하엿다 山村隊長은 頭部에 貫通銃創을바더 씨러젓다 松井伍長도繼續하여 씨러젓다 憤然히 渡邊隊長이 部下의 讐를갑고저일어난 刹那 敵手榴彈의 一彈이 飛來하여 親指를除한 四本의左指를날렷다 이것을 보고第二陣北村隊長은 部下四名을 일흐면서도 最後의突擊을行하여 城內에突入 城壁의아래 穴을파고 頑强히抵抗하는 敵을 日本刀를내둘러 五名까지 斬死시킬때 足下의一敵兵이 北村隊長의 右下脚部에 銃을대고 막노라할때 에이하는一聲으로 敵銃을目標로하고칠때와 敵이發射한것과 거의 때를가티하엿다 敵彈은北村隊長의 愛刀에穴을내고 右肱을 貫通하엿다 負傷한것을무릅쓰고 北村隊長은 더욱奮戰을繼續하여 敵兵을殲滅하고 城壁노피 血染의日章旗를나부겻다

敵機再三來襲

【安慶八日發同盟】八日午前四時頃 敵SB重爆擊機五機가 編隊로써 安慶上空에飛來하야 爆彈十五個를投下하엿고 同十一時頃再次四機編隊로來襲하엿스나 我地上砲火를맛나 爆彈을投下치못하고 遁走하엿다 또해가떠러저가는 午後七時十分 又復敵機六機가飛來하엿스나 압서와가티 我軍의 地上砲火를맛나 一彈도投치못하고退却하엿다 그리고同日午前八時四十五分 七機編隊의SB重爆機가蕪湖에襲來 爆彈數十個를投下하엿스나 安慶蕪湖가모두 我軍에는 全然被害가업섯다

絳縣一帶完全攻略

【石家莊九日發同盟】萬城目、鬼武、湧水三部隊는 到處에서 抵抗하는敵을排除하고 八日早曉絳縣一帶를 完全히 攻略하엿는데 繼續하야 潰亂하는敵을따라○○方面으로 急追中이다

九江情勢와AP報道

【經育八日發同盟】八日經育에達한 AP漢口電報는 九江在留外人으로부터의 情報라하야 日本軍의 進擊으로 떨고잇는 九江의 情勢를 左와如히 報道하고잇다 十萬의 九江市民의 大部分은 이미 避難하엿는데 支那軍은 盛히 塹壕와鐵條網으로構築하고 抗戰決意를보이고잇다 英國租界에는 아직 多數의歐米人이 殘留하고잇는바 危險하게되면어느때라도自國軍艦에乘船할수잇도록 準備하고 잇다 目下 在留英國人은 九江에十名 廬山附近에 五十二名이잇는모양이다

曲澤東南方의 敵大部隊를奇襲

【石家莊九日發同盟】秋元部隊는 七日早曉曲澤東南方地區에서 敵大部隊에果敢한 奇襲으로 이것을潰滅시켯다 敵은遺棄死體三百 鹵獲品은重機關銃十、小銃彈五萬發、手榴彈五百 我方의 損害僅少하다

曲沃前面의 頑敵 四分五裂의狀態

【石家莊九日發同盟】鈴木、眞野兩部隊의 果敢한 曲沃前面 敵陣의 中央突破及 ○○으로부터 北上하는 森本部隊의 猛進은 曲沃南方一帶의敵에게 大衝動을 주어서 어미完全히 連絡이斷絶되여서 狼狽大混亂의 態勢로因하여 西方或은 南方의山中으로 潰走하는等 四分五裂의狀態이다

國民參政會議 武漢死守決定

【香港八日發同盟】八日의 國民參政會議는 武漢防衛問題가 議論의 焦點이되여 武漢衛戍司令 湖北省政府主席 全省保安司令、大本營政治訓練部長의 各要職을 一身에兼한 抗日最强論의 先鋒 陳誠은 少壯軍人及 共產黨毛澤東、周恩來 其他第三黨左傾分子의支持를바더 和平妥協 中途屈服을 極力排擊하고 武漢死守를 强調하야 武漢決戰까지 前進할것을 主張하야 大勢를 支配한바 各議員中에는皇軍이破竹의勢로 進擊함에 武漢防衛의自信을 喪失하고 動搖의비츨 보이고잇는者도 잇스나 表面上 모두 强硬態度를보이며 武漢死守論에 贊成하야 이를決定하엿다

今年度實行豫算 朝鮮은二三千萬圓節約

藤本會計課長原案携帶코渡東

物資需給動員計劃에 基한高度의軍需及 民需의調節目的에 即한 消費節約은 政府스스로 率先하야 今年度 豫算에잇서서 最低二億圓의 節約을 決定하엿는데 이에 順應하야 總督府에서도 過般 大野政務總監이 渡東 拓務大藏兩省과 總督府 今年度實行豫算 縮減에 對하야 協議를하야 歸任以來 關係各局을 督勵하야 各局에 亘하야 可及的全般的으로 具體的 節減의 檢討를 試하고잇든바 大體그豫測이서게되엿스므로 藤本會計課長은來 十二日頃 右原案을 携行하고 渡東하야 拓務、大藏兩省에說明한後 諒解를 求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時局下에잇서서의 半島의事業計劃은 그性質上鐵道其他時局關係의 重要事項에 太半을占하고잇스므로 拓務省으로부터 提示된 約一割의節減은 到底히 不可能함이 明白하게되여 目下各局에서 具體的數字의集計를 急히하고잇는데 아마二、三

時事解說

米國의 對支態度

今次事變에 [illegible] 支那 [illegible] 를 기울하여 [illegible] 의 一途를 [illegible] 게되자 그 [illegible] 英佛等 第三國은 利 [illegible] 하는 對侯으로 [illegible] 對支援助의 態度 [illegible] 吾人의 注目을 [illegible] 고잇스나 太平洋 저쪽에서 [illegible] 하고 [illegible]

中立主義下에 [illegible] 하고 잇는 米國의 對支動向에對하야는 그것이 巧妙하고 [illegible] 一般의關心이 적 [illegible] 支那에對한 共同 [illegible] 에對하야 米國은 婉曲히 [illegible] 보여 온것은 [illegible] 하는것이나 그러나 對支援助의 [illegible] 가업다。◇

即米國은 그方法과 手段、에서 英國과 다를망정 蔣政權을 同情하며 支持하야 써 日本의對支軍事行動을 牽制하려는意圖만은 다름것이 업다。이가튼 [illegible]

하는 [illegible] 서米國은 (一) 蔣政權이 漢口에서 [illegible] 또 [illegible] 의 [illegible] 「米支 [illegible]」을 [illegible] 하고 [illegible] 의抗日 [illegible] 에 支持를 [illegible] 한것 (二) 最近에 駐蘇米大使조셉·데뷔스로하여금 [illegible] 솔린츠와 카라난 蘇 [illegible] 로토프人民委員會議長과의間을 來往케하야 對日牽制策을 [illegible] 하고잇는것 (三) 所謂「法과人道의一切原則」을 [illegible] 反對聲明을發表한것 (四) [illegible] 國務長官의 [illegible] 反對聲明으로 米國의飛行機 [illegible] 로하여금 日本에 [illegible]

實치못하도록한것。[illegible] 을列擧할수가잇다。◇

우리는 分散的인 英佛등의 政治的動向에만 [illegible] 한것이 아니라 米國의 이가튼 [illegible] 態度를 警戒하고 그動向을 [illegible] 視하지안흐면안된다。그것은 米國이 太平洋을 今世紀最高의 活 [illegible] 舞臺로잡고잇스며 白耳義은 支那市場에 重大한 利害關係를 가지고잇는 만큼 支那에잇서서의 米國의 地位와權益이 [illegible] 질 [illegible] 眞一의境遇에잇서 依然히不干涉態度를 堅持할것인지 가 實로 疑問이기때문이다。

聯盟無力에 蔣介石憤懣

【莫斯科八日發同盟】八日莫斯科에達한漢口發타스通信에依하면 蔣介石은 支那事變一周年에 際하야 타스通信社 特派員과의 會見에 잇서서 蘇聯邦의援助를 感謝하는同時에 聯盟의無力에對하야 憤懣의비츨보이며如左히말하엿다 一個年의戰爭으로 支那軍은五十萬의勇士를 死傷시켯스나 國內의團結은 益益强固하다 支那는 最後의勝利를 確保하기爲하야 다시一層人的物的資材를 動員하지안흐면 안되나 同時에 또友好國으로부터의支援을바라지안흐면 안된다 蘇聯邦을 비롯하야 其他의各國이 開戰當初부터 表示한 各種의援助는 支那軍隊와國民을激勵한바 자못컷스나 日本의 實力을 누를려면 國際聯盟國은 더욱一層確實한 誓約을할 必要가잇다

포랑코軍우에스占領

【사라곳사八日發同盟】발렌시아市進擊中인 포랑코軍은 카스떼롱南方二十키로에잇는 우에스를 死守하고잇는 人民戰線軍을 攻擊하야 八日同市를 完全히占領하엿다

西沙島占據는 事前에關係國과諒解成立

【經育八日發同盟】佛國이 西沙島占據에 關하야 八日經育에達한 UP漢口電報에 依하면 事前에이미 關係國間에 諒解가잇섯다는 旨를如左히報道하고잇다 支那東機關紙掃蕩報에 依하면 佛國의 西沙群島占據에 對하야는 日本을除外한關係諸國間에 事前에이미諒解가 成立되여잇섯다 佛國은平和恢復後再次同群島를支那에 還付한다는條件을附하고占據한것이다

人事·集會

◀宮本元氏(總督府法務局長)所管事務視察次로 十日午後三時五十分發北朝鮮에 出張十九日歸任豫定

八面鋒

米國은 比島獨立을 延期하고 空軍大擴張을 計畫한다고。◇理由는 日本의 海空軍이來襲할 念慮가 잇다함이겟지?◇豫算節約으로 總督官邸를 비롯하야 여러 官公署의 新築을 中止한다고。◇그것도 無可奈何、民間에서 먼저부터 建築에 制限이 잇섯거든!◇今年은 雨順風調、天水畓도 모다 移秧을 하엿다고。◇그러나 全羅道에는 稻熱病이 蔓延한다니 걱정。◇이번 霖雨에 얼마나 病이 退治되려는지。◇農業을 爲主하는 朝鮮에 豐年이나 저야하지。◇神戶地方 水害는 二億圓、死傷者 三千이라고。◇멀리서라도 人類愛의 同情을 不禁。

國府、「奸漢」名目下 著名人物大量殺害

平和論者、反蔣分子等

【北京八日發同盟】支那側의 支那事變一周年記念日委員會는 武漢防衛司令部에對하야 「七月七日의 記念日을期하야 公衆의面前에서 奸漢의 大量處刑을執行하라」고要求하고잇든바 確實한側에의 情報에依하면 同司令部는 그要求를 容認하고 七日에奸漢으로 多數한市民을 公衆의面前에서 銃殺又는慘殺等 極히野蠻的인 手段을 取하엿다고한다 處刑된者는 平和論者 反蔣介石分子等인데 同司令部는 人心의動搖를두려워 너무著名한 人物은 殺害치안엇스며 同時에 徐州會戰에서 敗하고 漢口로逃亡해온 將兵도 處刑되엿다고한다

裴南庄、住庄占據

【北京八日發同盟】敵大軍의 包圍下에서도 頑强히 十餘回襲擊하야 極力敵을 가까히誘引하여다가 一擧에 殲滅하려는態勢를 取한 我部隊는五日夜 準備도 完了하엿스므로 싸히엿든울분을 대번에 풀어버리고저 斷乎攻擊을 開始한바 滄河方面地區에 蟠居한敵은 이猛攻에 견디지못하고 허둥지둥 交里南吉로부터 滄河를건너 南方으로潰走한바 我軍은 이를追擊하야 滄河南方山岳地帶에 依據한敵을 擊破하면서 裴南庄、住庄을 占據하고 그一部는 七日朝 絳縣北方 西荊村으로 進出하엿다 滄河南方山岳은 地上約五百米가량으로 極히 險峻한데 同山地에는 殘敵多數가 아직도 蠢動하고잇는바 滄河南方에達한 我掃蕩部隊는 同地區로 戰果를擴大하야 殘敵掃蕩을 期하고잇다

黃河의 濁流 遂安徽省에浸入

【上海八日發同盟】支那軍의堤防決潰에依하야 氾濫한 黃河의濁水는中牟附近으로부터 東南方을向하여 賈魯河에 入하고 周家口의街를 濁流에 浸入시키고다시穎河에沿하여 東南方에 進出하고잇다 支那側漢口電報에依하면 水는 八日드디어 安徽省에浸入 太和縣城附近에 達하고 一日平均十哩의 速度로 正陽關方面에向하고잇다고말한다

佛國領事館 十四日에記念祭

來十四日佛蘭西共和國國祭日에際하야 京城館町佛國領事館에서는 當日午前十時半부터 同十一時半까지 各方面의 祝賀를바더 記念式을 執行할터이다

社大黨三黨員 風見翰長을訪問

【東京電話同盟】社會大衆黨麻生、淺沼、三輪三氏는九日午前十一時首相官邸로 風見書記官長을訪問하고 臨時議會召集에 關한要請決議案을 手交한後 首相에게 傳達方을 依賴하엿다

003127

米海軍機多數 알라스카로空輸

近近航空演習擧行乎

【샤톨八日發同盟】米國海軍의新銳哨戒爆擊機二十四機는 八日샤톨出發 알라스카에 空輸되엿다 右中 十二機는 米國코디약크島에 殘餘十二機는 싯카飛行根據地에 配置될터이다 또九日에는他二十二機가샤톨港을出發하야 알라스카方面에 向하는데 前記二十四機와 함께 알라스카를中心으로 近近航空演習을擧行할豫定이다

少年朝鮮日報今日發行

明年度海軍豫算 八億圓을突破乎

英米各國의軍擴에對應하야 第四次補充計畫確立

【東京電話同盟】海軍에서는 明年度豫算編成에 當하야 蔣介石政權을 根絶하고저 萬全의 處置를 進行하는 同時에 特히 最近에잇서서의 英米各國의 軍擴을 重視하고 事變때문에 我第一線艦隊 勢力이 英米의尨大한 新海軍에뒤질까가 事態를發生치 안토록 銳意對處方策을 進行하고 잇는바 去七十三議會에서의 米內海相의 言明과 가티 英米가 新軍擴을 强行하는以上 所謂 第三次 補充計畫의 一部修正을 不得已하게되여 第四次 補充計畫의 一部를 明年度豫算에 計上하고 自主的 軍備充實에 當할 根本方針을 決定한 模樣으로 따라서 事變에 잇서서의 直接 消耗部門의 復活費目 其他를 合算하면 當然 明年度海軍豫算의 推算은 八億圓을 突破할것으로 豫想된다

本社懸賞寫眞 佳作「水邊風景」 場所=大正水利貯水池서 義州邑弘西洞四五八 金炳洙

나치스黨大會 九月五日부터開催

【伯林七日發同盟】나치스黨最大의年中行事인 第十回黨大會는來九月五日부터 十二日까지 例例에依하야 뉴른베르크市에서 開催되게되엿음을 七日發表하엿다

海草精 諸血排毒强壯特効藥
適應症 梅毒、淋疾、心臟病、慢性僂麻質斯、神經痛、皮膚病、頭痛、腦溢血、中風、內臟、疲勞、動脈硬化症
一瓶(一個月分)三圓九拾錢
京城府鍾路六丁目二六七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 振替京城三一六番 電光三三二〇番

故丁貞烈編輯
一代의名唱丁貞烈氏의 唱은 이로不朽의名盤이되엿드니 遂然逝去로因하야 더욱 歷史的記念塔이되엿습니다
빅타- 春香傳全篇
全十九枚·華麗앨범二冊附·金二十二圓
吹込한名唱諸氏 丁貞烈 李花中仙 朴綠珠 林芳蔚 金素姬

회충구제량약 岩崎大海堂 セメン菓子 (산독니녈 珊篤尼涅菓子)
무서운 蛔虫卵을驅除합시다! 蛔虫卵은每日食用하는野菜김치等에附着하야人體內에드러가서體內에生長함으로서發熱腹痛嘔吐貧血夜泣等 其他 各種病의原因이됩니다 特히小兒는 蛔虫에걸리기쉬운故로每週日曜日에는 예전부터 信用잇고잘듯는 丹印 岩崎大海堂세멘菓子를 服用식혀서 이무서운蛔虫을 驅除하고애기네를 健康하게길러주십시요
本舖 大阪天王寺 合名會社 岩崎大海堂
類似品잇스니 丹印에注意

マラソン王 日本一滋養菓子 元氣가나는 一個 五錢
京城府南大門通 豐國製菓株式會社

母乳代用 滋養劑
活命素 활명소

愛兒에게 强健한肉體와骨格을갓게하랴면 活命素를服用식히라!
幼兒의合理的發育은 血色이조코强健한即骨、筋肉增生을第一로하지안으면안된다
이合理的發育을爲하는基本이되는活命素는脂肪、蛋白質은勿論비타민、칼슘等愛兒의健全한發育을爲하야必要한모든榮養素를完全히含有한點外라、消化吸收가速하며用法이簡便하고價格이低廉한母乳代用이되는榮養劑입니다
愛兒의最良發育을爲하야一次試用하십시요
朝鮮總督府警務局衛生課의內容分析表와文獻은一報하시는대로送呈하겟습
製造元 開城東本町七〇八 榮養研究社 電話五五六番
一手販賣元 濟生堂藥房 京城太平通二 電話本局二七一六 二八四五七番

朝鮮도中央에順應 物價取締陣强化

商工省令에準할만한新府令을制定

違反者는嚴重處罰

상공성(商工省)에서는 중앙물까위원회(中央物價委員會)에서제정한 면제품(綿製品) 피혁(皮革)제품 『고무』제품 공업약품등표준판매가격결정에대하야 그처분규정(폭리취체령)이 불원간하다하야 구일성령(省令)으로써 물품판매가격취체규측(物品販賣價格取締規則)을발표실시하기로되어서 위선마제품(麻製品)『고무』제품이외 십이종의특수물품(品種은九日附朝刊 一面旣報)에한하야 적용하기로되엇다 그리고 이외에면제품과 피혁제품에대하야는『섬유제품판매가격취체규측(纖維製品販賣價格取締規則)을업마전에 제정실시중이므로 전기규측과가튼 내용으로됨중한취체를 단행하기로된것이다

이에대하야 총독부에서도 중앙의방침에순응하야 위선폭리취체령 수출입품등임시조치법(輸出入品等臨時措置法)에의한 시국관계의법령의일종 강력적으로 발동하야 무리한물품판매가격을 엄중취체하는일방 이번상공성령과가튼 법령에준할만한 새로운부령을다시 제정발포실시하야 물가취체진(取締陣)을일층강화할처지하기로되엇다 그런데폭리취체령위반자에는 삼개월이하징역 또는 오백원이하 벌금으로되어잇스나 물가취체규측위반자에는 일개년이하 징역 또는오천원이하 벌금으로 되어서 그처벌규정이 매우준엄한것이다

伊藤警務課長 談

이에대하야 경무국 이등경무과장(伊藤警務課長)은 다음과가티말한다

조선내물가취체에 대하야는 사변발발이래 제삼차로 일천에 또가도에 폭리취체령실시강화철저에대한 주정을 발하엿다 그러나 대개각자가자성(自省)하야 위반자가 그다지만치는 안엇다 그런데 시국은 점차 용이치아니하므로 물자조정과 물까취체에대한것은 조금도방심을 허락지안는것이다 무리히이상하는물까또는 매석(賣惜)매점(買占)하는자등에게는 조금도용서업시금후엄중더 엄중한처벌을하라한다 특히 이번상공령으로써 판매가격을취체하기로된특수물품과가튼 것은 시국관계상더욱이 엄중한 감시를요하는것이다

經濟警察制實施協議

內地와가티廣範圍의機構는不必要 方今諸般準備에奔忙

장기전(長期戰)에 대비하기위하야 작년칠월이래 산업경제기구 각방면을 통하야 여러가지 통제법령을 발표실시하야왓스나 시국은 점차 험악하야저서 용이치 해결될것갓지 아니하므로 이때까지 실시하야오든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만전을 기하기 곤난하기때문에 물자동원계획(物資動員計畫)의 실행,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발동이 맛총내 구체적으로 결정되엇다

그리하야 내무성(內務省)에서는 상공성(商工省)과 연락하야 물자조정법(物資調整法)에 관한 법령의 운행에 원활을기할모도하야 국책에 순응하고자 경제경찰기관을신설하기로 결정하얏거니와 총독부에서는 현하조선의 실정에 빗치워 중앙의방침에순응하지안흘수업는 형편이므로 역시경제경찰기관을 신설하고자 경무, 식산양국이 서로협력하야 방금제반준비에 분망중이다

그내용의 일단을 듣건대조선은 물가배급지도와 통제범위가 내지와가튼 광범위가아니므로취체 그지도할경찰기관을 신설하는경우라도 반다시 내지와가티 광범위로 할필요는 물론업다는것인데 아직식산국과 자원과(資源課)와 구체적협의를 하지아니하얏스므로 그기구(機構)를 어느정도로조직하며 어에대한 경찰관을어느정도로 증원배치할것인지 결정되지못하얏스나 전번에 실시된 석유『까소링』통제로인한 경찰사무의 격증관게도 잇스므로 그증원은상당한 인원에달할모양이다

그리고 여에대한예산은 기구의범위기타가 결정되는대로 예비금에서 지출하도록 수속을취할터이다

伊藤警務課長 談

어에대하야 총독부 이등경무과장은 다음과가티말한다

경제경찰기관의신설은 여러가지실정으로보아 절실히 필요한것이므로 조선에도실시하고자 방금준비중이다

그러나 이물자조정법에관한것은 식산국이 주무당국이므로 식산국 또는 자원과와일간협의를한후가아니면 경제경찰과를 경무국안에둘는지 혹은 그계(係)를 경무과안에를는지 아직알수가업다 어에따러 증원배치여부원수도 아직알수업는것은 물론이다

대개조선은 여러가지특수사정이잇스므로 내지와가티 광범위로 기구를조직하지 안을것은 틀림업는사실일듯하다

白米價引上 한킬로五厘씩

단경기(端境期)에들어서 벼갑과 현미(玄米)갑시오른데따라 경성부공설시장에서는 팔일부터 백미(白米)갑동한『킬로』에대하야 오리씩가격인상을단행하엿다 다마금(多摩錦)일등한『킬로』에 이십오전오리하던것이 이십육전오리되고 다마금 일등(一等)에는 이십오전, 보통일등미는 이십사전오리로올랏다 그리고 현재한백미(韓白米)는 제일조흔것이십오원사십전가량이고 그중에도 무사미(無砂米)는 십육원가량이라고한다

奇特한獻金品

시내교북정(橋北町)오번지의오호에 사는 표인근(表寅根)(二ㅏ)씨는 구일아침에 시가일백사십여원어치나되는 금시계줄파 시가육십사원어치나되는 금반지한개를 가지고 소화시대본서에와서 국방헌금수속을청하엿는데 다시금 주머니에서 결주를하여 몽은돈이라고 오원을끄내어 북지(北支)수해재지의연금으로 보내달라고하야 동서원일동을 감격시켯다

總動員聯盟 十一日二次會合

어제오후두시부터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상무이사회를 열엇다함은 작보한바와갓거니와 아모로 운동을 한층 강화하기위하야 각각구체안을 맨드러가지고 오는 십일일오후두시부터 다시 총독부 제이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소집하기로되엿다

時局關係事務輻湊로 官廳半休를全廢?

總督府內에强硬意見

올여름가만처의 반나절쉬는것은 총후의지장과 인고를위하야 폐지할것이라는 의견이 총독부안에도다 혹은 이것이 불일중에 부령(府令)으로써 공포될는지도 모른다 작년여름은 사변직후엿든관게로 시국관게방면만이 이를폐지하엿섯스나 올에는 사변관게의사무가 전체로만잡해젓슴뿐아니라 관청에서부터 민중에게 모범을보여야 되겟다는 의견이 유력하여진것으로 작년모양으로 피차의논정도에 그칠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총독부령으로써 실시하자는것이라고한다

金剛山探勝施設 調査委員會召集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금년도의 금강산 탐승시설과 그계획에 대하야 협의하고저 십오일 금강산 탐승시설 조사위원회를 총독부제이회의실에서 열기로되엿다

疾走中의트럭 電車後部破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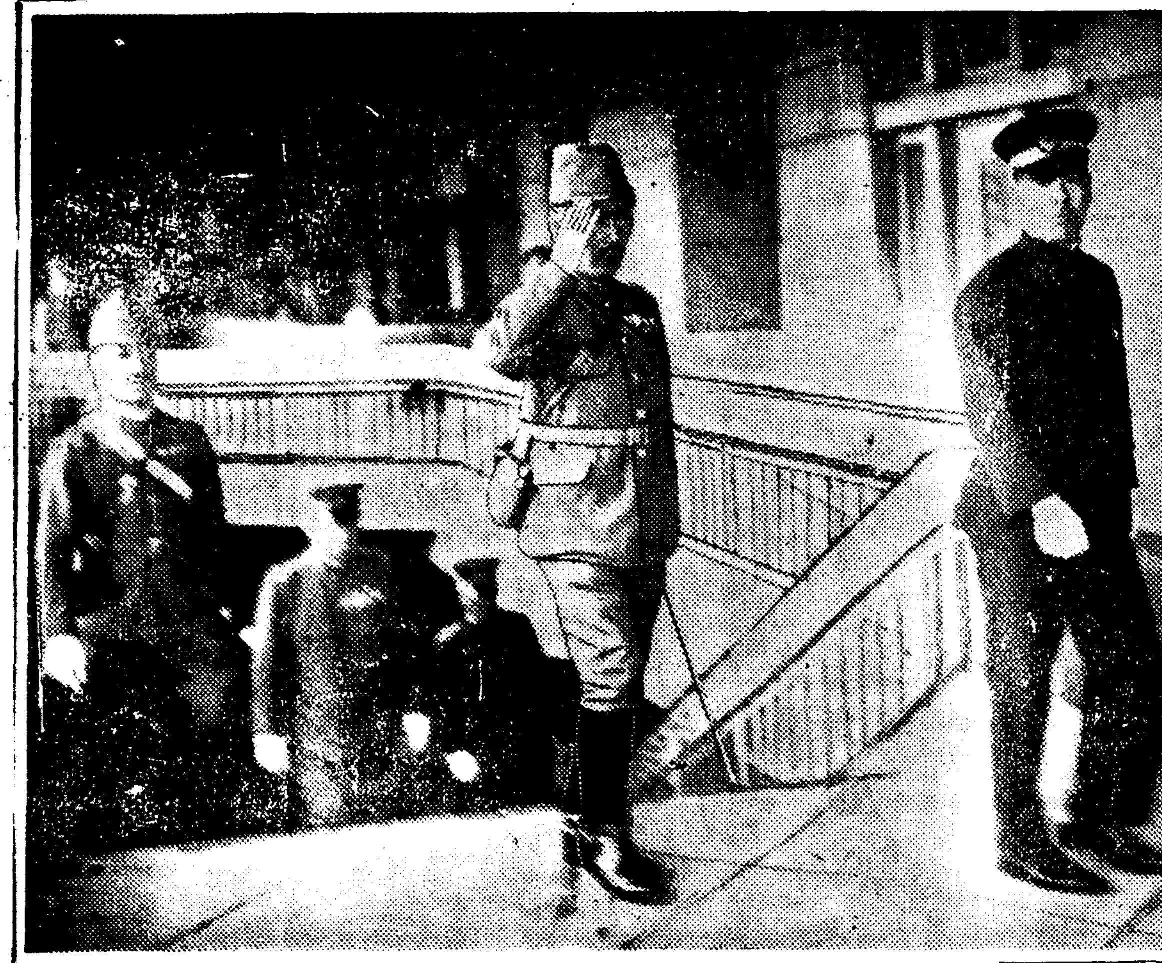
培花高女生一名은負傷 總督府前交通事件

구일오전 열시반쯤에 부내 광화문통(光化門通)총독부앞에서 부내원정(元町)에잇는 청목(靑木)이라는 사람의 자가용화물자동차 운전수 김○○(二八)은 이 안국정(安國町)방면으로부터 남대문(南大門)쪽으로 운전하여오다가 『카-브』를 돌다가 잘못하야 효자정(孝子町)으로부터 경성역으로 가는 전차의 뒤를 바덧는데 이때문에 전차의 뒤기 산산히 부서지고 전차에 타고잇던 배화(培花)고녀 삼학년생 김성분(金聖分)(一七)이 경상을 입고 의전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가해자는 방금소관경찰서에서 취조중이다

(사진은 현장)

愼飛行士의佳志

지난칠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발회식에 신(愼)비행사가 축하비행을하엿는데 이에대하야 조선연맹에서는 그사례로 금일봉(金一封)을보냇더니 신비행사는 이것을 아프로 조선연맹의활동자금에 보태써달라고 전액을기부하엿다



朝鮮史料叢刊完成

新羅統一時代로부터日淸戰爭까지卅五卷

編修會十六年間苦心의巨業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는 드듸여 조선사 삼십오권 조선사료총간(朝鮮史料叢刊) 스무가지 조선사료집진(朝鮮史料集眞) 세질(帙)의 간행을 끗내여 문화적일대사업을 완성하엿다

이 조선사는 신라통일(新羅統一)이래 조선이태왕 삼십일년 갑오(甲午)즉 일청전쟁(日淸戰爭)까지를 논하서 설흔다섯권이만사천페지에 이르고 고본(稿本)도 이천구백스물일곱책에 달하는것으로 소화육년부터 백여내기시작하야 올삼월에 끗내엿다 이와아울러 중요한사료로써 세상에 알려진 스무가지를 골라서『사료총간』을냇고 다시옛기록과 옛어른들의 영정(影幀)등 귀하고갑가는 사진 이백스물다섯가지를 모하서 여기해설을 부치어『조선사료집진』이라일커른것이다 조선사편수회의위원회를 설치한이래 이미 열여섯해가흘러갓고 여기 기우린비용이 백만원에달하고서 마침내 이국가적 대사업을 이루운것이다 이로써 옛조선의 정치, 사회, 문화 각방면의 모든현상을 더듬어알수잇고 지금까지 일부뜻잇는이들이 대(代)를물려 곱방속에 기피감추어두엇던 수만호사료가 일반의눈아페 펼처지게되엇다 뿐만아니라 그새 빗나간 못대로써 어긋나게 전하던것을 바로잡은것이 적지안코 흔히하든 사실을 밝혀노흔것도 만하서 한계에미칠 유익한바가 적다고할수업다

蒐集史料 四千餘點

이사업은 일즉 일한병합당초 사내총독(寺內總督)적부터 게획되어 그때 취조국(取調局)에서조사해 오다가 그뒤 중추원(中樞院)에 옮겻스나 완성을보지못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하엿든것인데 사료가되는 예기록이차츰차츰 업서저가는터라 그대로 버려둘것이 못된다하야대정십일년이월 총독부 훈령(訓令)제육십사호로써 조선사편수위원회 규정을 공포하고 이방면에조예(造詣)가 기픈학자들을 골라뽑아서 위원회를 조직하기에이른것이다

그뒤에 그규모를더크게하고 권위잇는 조직을하기위하야 대정십사년 유칠월 칙령(勅令)으로써 관제를 공포하야 조선사편수회를 독립관청으로 맨들고 정무총감을 회장에 문학박사 흑판승미(黑坂勝美)가튼 복부우지길(服部宇之吉) 후작 박영효(朴泳孝) 문학박사 내등호차랑(內藤虎次郞)씨들을 고문으로잡고 법학박사 조전치책(篠田治策) 문학박사 금서룡(今西龍) 소전성오(小田省吾) 이능화(李能和) 최남선(崔南善) 등전량책(藤田亮策)씨를 위원에임명하엿다

그다음 소화박사 도엽암길(稻葉岩吉)전보교결(田保橋潔)중촌영효(中村榮孝) 말송보화(末松保和)씨들이 직원이되어 이래 십육년동안 정성과 땀으로써 오늘의 금자탑을 쌓키에 성공한것이다。

처음에는 사료를 모기에 골몰하야 조선전토는 물론만주북경을 뒤지고 내지에까지 휘더듬어그 수집사료는 사천구백오십점에달햇고 그복본(複本)이 완성된것만 일천육백이십사책이다。

특히 구대마번주(舊對馬藩主) 종백작가(宗伯爵家)의 내려오든 조선관계의 사료를 일흥 양도바든것은 특기할만한 사실이라한다。

朝鮮史總索引 作成開始

편수회에서는 이번 대사업의 완성과 함께 다시 조선사색인 (朝鮮史總索引)의 작성을 계시하엿다 그뒤에는 처음규정한방침대로 일한합병 전후의 자료를 수집하기로 되어잇다。

國旗制定記念日 奉告祭擧行

宣揚會朝鮮本部主催로 十一日朝鮮神宮大前서

오는십일일은 일장기(日章旗)가 제정된지 팔십사주년에 해당하므로 대일본국기선양회(大日本國旗宣揚會)조선본부에서는 시국을감하야 중대하여저가는비상시국에비추어 국민의 의기왕성한것과 국민단결의 공고한것을 세계에알리는 일대시위의 뜻으로 국기존중의관념을 더한층철저하게하는동시에 국기제정기념일을 축보하고저 경성부와 교화단체연합회의 후원을 어더가지고 십일일오전여섯시이십분에 조선신궁에서 국기제정기념일 봉고제(奉告祭)를 거행하게되엿다 그리고 일반의 참집한곳에서 동대(東代)대위의 기념강연이 잇을터이라고한다

武勳赫赫!川岸將軍 今日京城驛에歸還

驛頭에三萬官民盛大한歡迎陣

도중 평양(平壤)에들렷든 천안중장(川岸中將)은 구일오전열시십오분에 평양역에서 평양관민다수의 전송으로 출발하야 오후시삼십삼분에 경성역에 귀환하엿다 역두에는 남총독(南總督)소기(小磯)군사령관을 비롯하야 군부관게 각단체원 일반민중으로 삼만여명의대중이 감격에 넘친 환영을하여서 경성에서는 일즉이 보기드른 대환영이엿다 천안중장은 경성역 귀빈실로부터 역바그로 나와서 뚝껑업는 군용자동차에 올라 타고서 천천히 운전시켜서 만호환영군에게 손을흔들고 일일히정중한답례를하엿다 그리하야 바로 조선신궁으로 가서 귀환봉고의 참배를하고 숙사로드러가서 일년만에 부인가족일동과 서로기뿌게대면하게되엿다

평양으로부터 경성까지 오는 도중의 각정거장마다 각단체원과 일반관민들의 환영이 굉장하엿스며 환영하는 만세소리는 신의주(新義州)로부터 경성까지 천여리거리에 끄님업시 연속되엿다

(사진은 귀환한 천안중장=경성역에서)

라듸오體操普及에 遞信局도協力活動

조선체육협회에서는 국민체력향상을 위하야 체조의 보급에노력하거니와 체신국에서도 이에 호응하야 전조선각우편국소를총동원해서 ▲國民保健體操圖解 ▲宣傳포스터 ▲情報指導解說書 등을 배부하야 라듸오 체조보급에 적극활동키로되엿다。

井邑郡稻熱病 被害三千五百町步

【新泰仁】전북정읍군 평야일대에는 도열병이 만연하엿다함은 본보에루보하엿거니와지난이십일일현재로 군당국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피해면적은 삼천오백정보요피해액은 십사만오천이백육원에 달한다는데 목하군

普專卓球京都遠征

普成專門學校卓球部에서는 全日本高專卓球大會(京都帝大主催)·來十七、八兩日間擧行)와 全日本高商卓球大會(大阪商大主催)·來十

都市對抗野球豫選延期

都市對抗野球大會朝鮮豫選第二日의 準決勝·全京城對大田鐵道及 城津鐵道對 京城球團의 二戰은 九日午後一時부터 京城球場에서 擧行할 豫定이엇든바 降雨關係로 明十日로 모두延期되엿스며 따라서 決勝戰도 十一日午後二時부터 同球場에서 擧行키로 日程이 變更되엿다

運動界人事

▲玄明鎬君(咸興씨름選手)入京 ▲朴興龍君(同上) ▲許永和君(鍾城씨름選手)同上 ▲李成株君(新浦씨름選手)同上

天氣豫報

概況 低氣壓은 新義州附近에잇서 北北東에 進行하고잇스며 또滿洲에도 弱한 低氣壓이 엇다 高氣壓은 本邦의 南東海上과北海道東部에 퍼저잇는데 그勢力은 弱하다 南朝鮮은 흐리고 中部以北南滿洲는 비가내리고 黃海沿岸은 南風이 좀强하다 內地는 晴雨不定하고 處處에 降雨가잇다

豫報 今夜는 南西風이불고 비가오고 明日은 西風이불고 흐리다

氣象特報 本日午前八時京城測候所發表 第一區沿海部 바람이强해진다 비도따라서내린다 海上에서는 비구나 風浪이高하다

昨日最高 二五度一 同最低 一八度九 九日朝最低 二一度一 今日正午 二四度八

오늘의라듸오

第二放送 ▲午後六時三〇分 童謠와合唱 京城保育學校生徒 ▲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七時 趣味講演 申鼎均 ▲八時 大衆講座 金進稱 ▲八時三〇分 社會見學 李白娟 金洲明 ▲八時五〇分 歌謠 張彩宜 李飛鳳 ▲九時一〇分 管絃樂 ▲一〇時一〇分 國語講座

第一放送 ▲午後六時(大) 國史劇 ▲六時二五分(富) 講演 ▲七時三〇分(大) 歌謠 ▲七時四〇分(東) 講演 ▲八時(大)甲斐美和子 ▲八時三〇分(大)民謠 ▲八時五〇分 漫才

色鉛筆

모처럼 이여름의 유행이라고 작만햇든 구두에 양산에 도홍곳기리를 이라는 하이카라로 난상 골랏든것이 ▲쨍쨍하게볏이드는날만을 생각하엿든것이다 마춤여일날이 궂지고장마가드니 단볌의말은 신발로야 행세가 되지안흐니 어찌나 ▲어려운노릇이 시체라 비가오면 비가온다고 날이들면 날이든다고 날세를 골라가며 시체를찾자니 어려운노릇이 아니더 어려울까 ▲어것도 마음의 속치레를 생각지안코 겉체만하려는 사람의고민

【雨天不拘決行】

今夜!全朝鮮씨름大會

九、十兩日 午後七時半 朝鮮日報社大講堂

朝鮮의一流名將(玄明鎬(咸興)、許永和(平壤)、宋炳鎭(吉州)、崔九出(大邱)、李根燮(?)、李成株(新浦)、金相洛(新浦)、玄寬彦(吉州)等 六十餘名力士出場)

主催 朝鮮씨름協會 後援 朝鮮日報社

觀覽料 一般40錢 學生30錢

理想の強力殺蟲液 フマキラー

せきづゐ病 神經痛、骨膜炎、류마치스

兵庫縣明石市人丸下 元木脊髓藥本家

GREAT TOKIO 7

東京に生れて(長谷川時雨)麻布と銀座(高見順)常識の方角(松井翠聲)迷つた敎訓(丹羽文雄)洋裝(夏のモード・澁澤沙河)うなぎ(宮川曼魚)藝者の事ども(徳田優子)今昔小髷、河原崎國太郎訪問記、新抄花街細見、夏の海釣 ― 定價卅錢送料共二十三錢

新鋭な視角と內容を持つ素麗高佳の夏のグラビヤ集

新人の新文藝大募集!キヤメラマンの作品競演集

大東京案內社 東京市麴町區有樂町二ノ四 振替東京二六五三三

男女淋疾의靈藥 治麻球

京城南大門通五丁目 製造元 發賣元 救世藥舘 振替京城一二六九九

KONG-GO KONG-GO KONG-GO

神經痛・류마치스治療劑 ネウロジン(金剛)

本劑는 五%부로-무마그네시움을主劑로하고 此에純葡萄糖을高張性으로配合한無色透明滅菌靜脈注射液이다

【適應症】神經痛、류마치스、肩凝症、腰痛、神經衰弱、氣管支喘息、胃痙攣、姙娠阻惡等

【包裝】一〇cc五管入、二〇cc五管入

各地藥店에서購入하실때는반드시「金剛製藥」의「네우로진」이라고指定하시고萬若品切中이면直接本店으로用命하야주십시요

製造元 發賣元 京城府黃金町一ノ五七 金剛製藥所 電話②三三五二・四八六二・二七〇一

N.K.2.

빈대 당장 전멸「빈대팔진미」(八珍味)

세계적 신발명

우리일간에 희소식

全人類明朗譜!!

빈대가할일업서다ㅣ죽엇다

◎◎◎◎◎◎

南京虫遂全滅!!!

파리약가지고 빈대약이라고 하는데가만타 갑싼것은얼른 보기에죽은듯 하다가도못다 시살어나며원 점안빈대가몰 사하여야지한 방에빈대가조 곰약하여지는 정도의약은아 무소용업다결 국갑싼것은갑 싼갈치자반에 되고마니오히려 이확실한갑몃 싼것에도리혀 잠니다즐잘생 각하여주시오

빈대가전멸된다!!!
—세계적신발명(南京虫全滅)

일년중 제일 귀찮는 여름! 더운것보다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것보다 가려워서 한잠도못자고 병어들어 죽게되는 지긋지긋하고무서운『빈대』 서절어왓다 아ㅣ무서워라 빈대는 우리인류의(人類) 공동의 적이다(共同之敵)자기혼자만잠을 못자고 귀중한 피를빨니는것이아니라 전자손이 다ㅣ죽을지경이오 며 구나어런자여운 자녀들의피를빨아먹는다 참으로전인류(全人類)가 다ㅣ빈대때문에 죽을지경이다 여름이되면 엇던집이던지 방마다 벼어젯할것게 피투성이가된다 누가보던지 창피하기짝이업다 그뿐 피는 고사하고 제일잠을못잠으도열 도못하고 몸여괴곤하여 말르며병여된다 사람은철석이라고 잠을못자면 영웅열사도 못견되고 제아모리강철어라도 소용업다 일각잠어 천금어라고(春宵一刻千金)한숨의 잠이 천금어다 그러나어번대를 완전허 전멸식힐수는업섯다 정말우리네인지자(人智)아직도미급하엿다 어것을퍽이나유감으로생각한다 십여년전에 엿던열 유명자 오열 쟁여 신사자(一流名士)엇던지생집에를 갓섯다 그런데저생은 서울서얼등만 하든 거생으로서 장안 일등명기엿다 그기생의집을찻다온 명사의 말이정말걸작이고 수수엿섯다「〇〇〇어는 장안일등명기인만콤 관죽으로만 늘대그려」그게무슨말이야 그는화초기생연대무슨관죽(蘭竹)을 그릴줄아나? 아니야 정말셋빨간붓으로 사방벽에다가관죽을 여지업시막그려노앗드구먼 하하빈대피로 자내정말걸작일세그려 빈대를눌러서 죽죽그여노앗스니 그것이관죽일세그며 울치울처 그말어자연 그기생을멸시하는 우수재말어되고말엇다 아ㅣ서 울일등기생도빈대때문애가치가떠러지는구나 아-원수의빈대인제든지몰사의 철퇴를내릴터이니 빠며보아라 엇더케하든지 어떤날을스려운 빈대를엽새보겟다는 구든결심을하야 십여년을고심연구할결과 과연·천하에전무후무정말 그야말로미증유(未曾有)한독특한 전대미방을발견하엿다 어것어야말로 유열무이한것어다 엇재는 완전히 전세계의 빈대를확실히 저도업시 전멸하게되엇다 쾌재쾌재라 제아모리 모질고악독한 빈대라도 우리의위대한과학과전보한제식에는 하는수업도다

엇지하야전멸되나?

빈대가 사람냄새와 독갓흔피냄새를맛고와오면 사람피가아닌피보다 더조흔 팔진미(八珍味)를양것먹고 빈대집으로도라쳐면 그빈대전신에무든 팔진미자 빈대보금자리에가득차게되는대 그팔진미의냄새만 다른빈대가맛더도죽으니 처음먹고 간빈대한마리는 물론대소빈대와 빈대알까지 전멸를사하는 참신기하고도 피상하고도고마웁고 자미스러운 빈대의팔진미를 선발명하엿다 여번대 팔진미로하로에 당장에 전멸하오니 어여름만전가족이 잘지내는정여야니와 영원히 편안하게행부스럽게 세상을 보내게되오니 여러한행복여 또 어데잇겟습닛가 열시라도 속히주문하야 쓰서 고혹모로는 분어잇거든연류애(人類愛)의견지로 자여운동포를 구재하여주시도록하셔 오여우애며 조혼적선은 또업스려라 그뿐더러이 팔진미는빈대의외무는 해충어든저다ㅣ죽고 벼룩,진데거,배채무등,채소벌레,도죽사합니다 사람에게는 아모해도 업습니다 팔진미「갑」은제일적은것이일원이오(一圓)어원삼원까지엇습니다방이 만커든 삼원어치만쓰면고만엽니다 저방송로(送料)삼십오전여오 셀금어면십오전어오 경성서대문탁제열큰힌벽돌양옥선기전성당약품적수열주식회사로 주문하셔오 (만일에전멸안되면 엇더한책임어라도 도점니다)또종해의번대홈어라든저여러가지는 열시적어오완전히전멸안하며홈은오점물자폭등으로 그절삼배나됨으로 실원어상들고도불충분하며 열시적여나어빈대팔전에는정말여러가지로가장러상적이다

책임권

빈대는 팔진미한번만 쓰면 빈대가 아조져도업시전멸함으로 절대책임권을드려것습니다 그려고전멸한후는어웃사람들께도 널어선전권고하시와다시빈대자올며오지안토록하셔시오그리하야어세상 빈대를 어팔진미로완전히멸종식히셔다경성 세대문신저셩당 약품적수입주식회사로주문하시오

안민은장수의 원천

빈대는 안민을 방해한다

귀한에게 빈대때문에 밤잠못자고 피곤하야 조는 양은 가엽고도예처롭다 웬수의빈대! 그래도 또 물너덤비는 빈대들을보시요

【문】당신은엇지하야 그러케화색여 조코 명랑하십니까?

【답】「빈대팔진미」로빈대를 전멸식히고 오래간만에 밤잠을잘잣더니 그런가봐요 사람은 밤잠을 달게자야해요 보약여 다ㅣ무어야요!

팔진미를 써보든분들의 자미잇는 이야기

빌향에 벌서 그험의위대한것을 증명한편지가엇저만은 세계에서쓴분들의말슴을 들어보면 여러하다 처음에 열원분을 방가에다 종이를접어서 사방에다 부치고 자루를 좀득접게 뿌려노앗드니 자고여러나보니 그러케 만은줄모르고엇섯는데 원빈대가 전부나와 색자마체물사 전멸한것을 보고하도 융굴점으로 어웃집에가서 이야기를할랴고하니 역시그집에도 물사한빈대를쓰러내면서 하는말이 이야말로 공자님보담 더고맙다고「누가발명하엿는지 보선커레나 양말이 나사다주엇스면하드람니다」다른 것은냄새만나고 잘안죽고 죽어도열주일 이상걸리는데 이것은단박에 전부다나와서 죽으니 정말 유쾌하여요 하고말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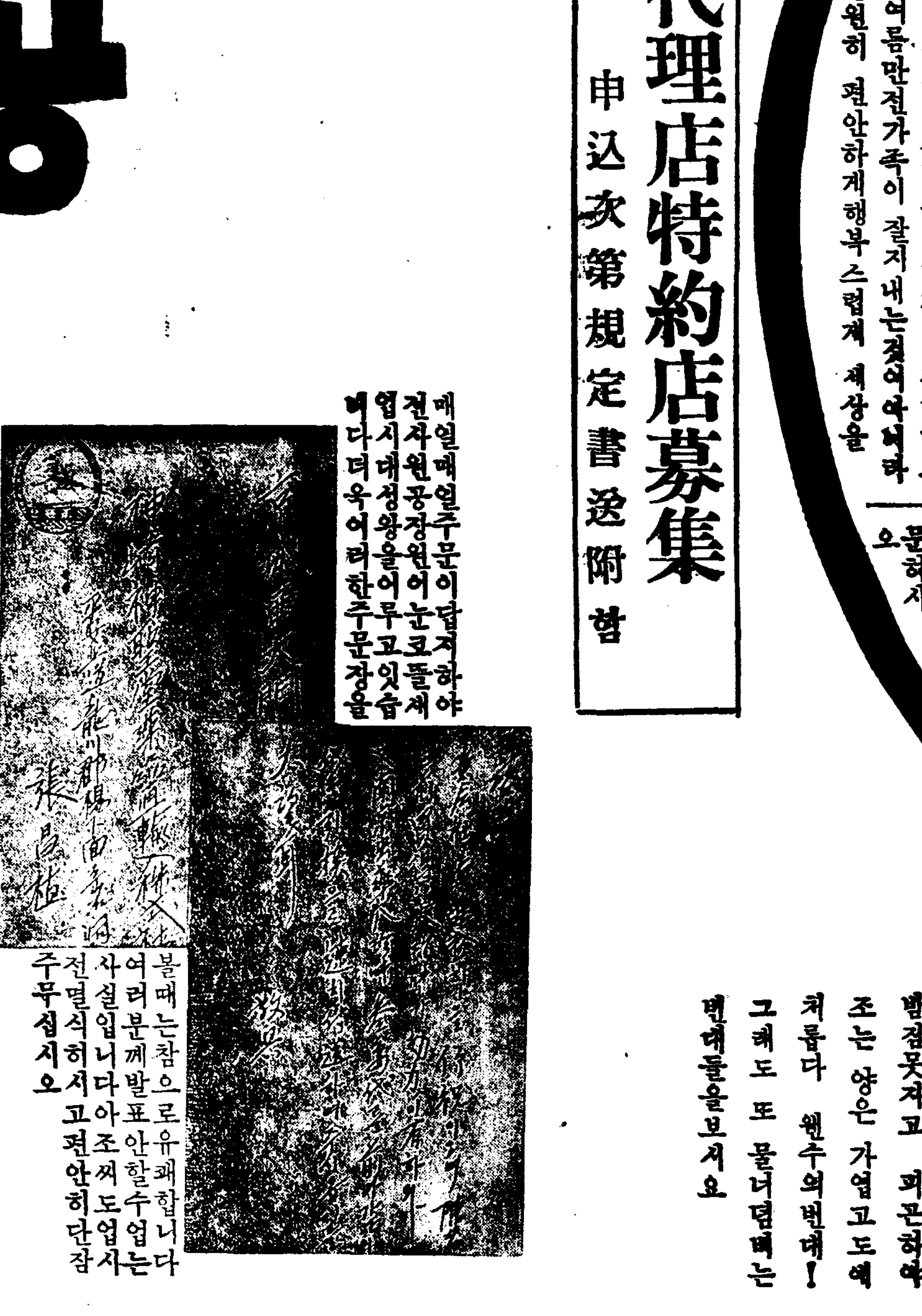
理想的!

빈대전멸에 대성공

〔人畜無害(인축무해)라고안쓴것은위험하오니〕〔사실때에꼭주의하시오〕

代理店特約店募集

申込次第規定書送附함



매열매열주문이답지하야 전사원공장원이눈코틀새 업시대성왕을어루고잇습니다더옥어려한주문장을 불때는참으로유쾌합니다 여러분께발표안할수업는 사실입니다아조써도업시 전멸식히시고편안히단잠 주무십시오

002128

定價(정가)	
방이한간이면	일원
방이삼간이면	이원
방이여럿이면	삼원
덕용	오원

지방송료	
선금	십오전
대금인환	삼십오전

결코일시적이아닙니다 아조제도업시멸종하야바립니다 될수잇스면 갑만흔오원분을쓰시오 매득입니다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京城府西大門入口 (제일큰힌벽돌양관)

電話光化門 三三四 一二九九 一〇七七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私書函 西大門局二號 光化門局四五號

資本金百萬圓

家庭

들에놀러나가서 약초캐오는자미

산삼과불로초도풀숩에서나요

어떤풀이어데약되나

요즘은 한방의학의연구가 굉장히 만하집니다 더구나 서양에선 동양고래의 약초에 대단히 흥미를 가지고 잇습니다

그중에도 독일에서는 동양서쓰는 약초에서 에끼쓰를 내여가지고 그것이 되저일본으로 꺼구로 수입됩니다。

약초에는 종류가 여간만치안어서 약입천종이상이나되고 역사도 대단히길어서 도모지 까마아득한 옛날부터 발달되엿습니다 즉 오늘날까지 한방약에서 전통적으로 쓰는것은 고대지나의 의성(醫聖)이라고하는 신농씨가 그시대에 차저노흔 삼백육십여종약에 의하는것입니다。

이제 여름을 이용해서 산으로 들로나가는 사람이 만흔데 그러케 도라다니는 사이에 약풀이 눈에띄이거든 캐여다 쓰시라고 이제 손쉽게어를 약초의 몃가지와 그효능을 말슴하겟습니다。

쑥

이것은 제일엇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가 만히 써온 약입니다 이것은 입파리와 줄거리를 말려서 대려먹으면 복통、구토설사、자궁출혈등에 효력이잇고 담배대신 피우면 천식이 업서집니다 또모기불도 피웁니다。

산귀래(山歸來)

산귀래(山歸來)이풀은 입사귀가 둥글고 기름이 흐르며 줄거리엔 가시가 잇습니다 그리고 넝쿨이저서 큰나무에나 떨기에 얼키잇습니다

이입사귀를 생으로 잘게씹어먹으면 선창병에 조코 뿌리를 대려먹으면 오줌을 잘 통하게합니다。

애기똥풀

이것은 꽃이 배추꽃갓고 입사귀는 무입사귀처럼 생겻는데일홈이 애기똥풀외에젓풀、까치다리라고도합니다。

어것을 대려서 먹으면위암에 조타고합니다。

쥐손이풀

이질풀이라고도합니다 길여페흔히잇는 풀인데 작은넝쿨가튼 줄거리에 힌털이나서잇습니다。그리고 힌꽃치 피는데 화판은 다섯개입니다。

칠월로부터 팔월에 걸처 줄거리를 베여서 물에다잡까씻처가지고 볏헤다 말립니다。

쓰는데는 설사에쓰면 효력이만습니다。

무화과

무화과는 아무데나 잇는데이입사귀를 대려서 그물노뒷물을하면 치질에 조코 소화제로도 씁니다。

파리

이것은 빨아케 익은다음 아이들의게 날채로 먹이면 기생충이 업서지고 줄거리와 입사귀를 대려서 먹으면 하열제(下熱)가됩니다。

복숭아씨

복숭아씨 일곱몸메 살구씨두몸메 대황네몸메 인삼두몸메를 가루를 내여가지고 잘섞거서 약세첩을지어가지고 사흘동안 먹으면중풍중에 효과가잇습니다。

긴질경이

이것도 아모데나잇는 흔한풀로 그열매는 차전자(車前子)라고 하는데 해소、리요제(利尿劑)가됩니다。또는 이것의 줄거리를대려서 먹으면 소화불량 적리(赤痢)설사에 조코 또 입사귀를 생으로 짓이여서 헌데 못치면 고름을 쉽게빨아내서치료가빠릅니다。

도라지

가을의 일곱가지 약풀가운데 들어서유명한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각금나물을 해서 먹는데 말하자면 찬도되고 약도되는셈이니 오죽조흡니까。 소위요즘 신약가운데 「구부라고민」이라고해서 파는것이잇는데이것은 사실 이도라지 뿌리에서 짜낸에끼쓰입니다。

도라지는 옛날부터 대려먹으면 폐병、천식에 조코 기침을멋게하는대도 썻습니다。

배

배는 아이들 백일해에조흔데 무와가티 갈어서 겹은 설탕을처서 하로쯤두엇다가 먹이면 조흡니다。

어바게 또한가지 알어둘것은 중이염(中耳炎)을 얼으켜서 귀에서 작고 고름이 나오고할때는만형자(蔓荊子)승마(升麻)목통(木通)작약(芍藥)、맥문동(麥門冬)지황(地黃)시호(柴胡)、복령(茯苓)、국화(菊花)、상백피(桑白皮)—이상의 약재를각一、五그람과 감초한그람을 한해서 [illegible] 을 곳치내면 [illegible]。

웃는부용

애기낫는것이란 부인네일생의 큰일이에요

산모와애기의건전을위해서 임신중에는어떠케할까

❶ 女醫 許英肅

태모와태아

부인네들이 아기를배서 열달동안 배스속에서 기르다가 해산을 하는일이 병이 아니오생리적이며 아무도 다하는일이기때문에 퍽 쉬운일갓해보이지마는 결단코 쉬운일이아니라 까딱잘못하면 두생명을 일허버리는 무서운일입니다 외피병이나 내파병 기타 아무리중한 병이라도 잘못하면 한생명을 일허버리는 일밧게 업지마는 동시에 두생명을 일허버리는 일은 해산하는 일 밧게 업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열달동안 감기 한번아니들고한번도 체하지도 안코 지내기는썩 위생을 잘해야만 가질수 잇는 일인데 태모로 말하면 아히밴 사실로 말미아마 모든 신체조직에 대한 외래적·영향이 달러지고 신경이 과민한 상태에 잇기 때문에 조고마한 불섭생으로 병을 이르키기 쉬울뿐아니라 보통사람가트면 병이 나드래도 의사가 약을 마음대로 쓸수가 잇고 처치도 마음대로 할수가 엇지마는 산모의 병은 배스속에 잇는 아이의 건강상 해를살펴서 치료와처치의 방침을 세워야할뿐아니라 아모리꼭 써야만할 약이라도 태아에게악영향을 주는것은 도리어 쓸수가 업는것입니다 가령 태모가 만겨울 하얏슬때에 복통이 심하고 뒤가꽉 막혓슬지라도 이 복통을 누르는 진정재라든지설사를 시키서 속을 화 뚜러내는 약을쓸수가 업스니 설사약과 진정재를 쓰면 태아에게와 자궁에 악영향을 주어서 태아의심장소리가 낫버지고 자궁이 수축이 어려나 조산(早産)이나 유산을 하는 경우가 만습니다 설사약을 좀 썻더니 괴가 보인다는 말은 우리가 종종듯는 일입니다 이것을 방구어 말하면 태모가 뒤를 좀 시원히 보기 위하여 태아의 생명을 일허버리게 한세음이됩니다 어떠케나 조고마한사실로 말미아마 무서운결과를보게되는것입니까 그뿐아니라 태모가 열달동안 위생상 합리한 생활을 하지아니한 까닭에 배속에 든 태아가 마음껏 발육이 되지못하고 약질이 되거나 심지어 기형아(畸形兒)를 만드는 수가 엇스니 진실로 태모의 위생이란 어떠케 큰 의미가 잇는것입니다 옛날부터 태교(胎敎)라하는 말이 잇습니다 태모는 바르지 아니한 자리에 안지를 말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바르지 못한아기를낫는다 태모가 한번몹쓸말을 정기고피는것이 다 태아에게 영향이잇는것이라 말하엿습니다 옛부터전해오는 태교로말하면 태모로부터 태아가밧는정신적 영향을 가리처말한것인데 오늘날 발달된 과학의눈으로도 태와모 태아의 관계를볼때에 정신적으로는 물론이오 어머니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한 육체적 영향을 밧는것을 증명할수가잇습니다 태모가 한번잘간 깜짝놀난일이 잇섯드니 그후부터 아이가 떠러젓다는일 태모가 몸을 잠간 차게햇더니 그후부터 어린아이가 몽키고 잘놀지아니한다는 사실은 아이를 배여보신 부인네들가운데는 경험하신분이 만히 게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태모가 배스속에 잇는 아이를 위하여 얼마나 몸 조심을 해야 될것을 잘 알수가 잇습니다 아히밴부인의 대한 위생을 네부분으로 난호아 말슴드리겟습니다

첫재 아이서실때의위생

둘재 열달동안의위생

셋재 아이나을때의위생

넷재 아이나흔지다음의위생

오이、풋콩등속을 겨울에도먹는수

저장해두는법도간단해

여름에 채소가 흔할때 조흔것 몃가지로 골나서 저장해두엇다가 겨울 십이월이나 정월쯤해서 내여놋는다면 얼마나 조치잇겟습니까。

아시는바와가티 지금은 겨울에라도 온실에서 길은 채소가 업는것은 아니나 비싸길무척비싸니까 어디 좀처럼 쓸수잇습니까。

그러므로 집에서 몃가지 저장해두엇다가 쓰면 여간 새맛이 나는게아닌데 그 저장법은 그다지 어려운것이 아니고 쉽습니다。

먼저 저장하는 궤짝입니다。 어궤짝은 뚝경이잇는 상자맨드는종이로만든것이든지 그냥나무궤짝이든지상관업는데 그릇바구니를 전부발너야합니다。

틈바우니를 조선종이로 아조 정성을 드려서 바르되 한번만 바르지말고 되도록 여러겹발러 서빈틈업시 만듭니다。

그런다음 보통우리가 채소나 파실을 딸때에는 아조잘익은것으로 하지만 이러케 오래두는데는 너무익은것은 못씁니다。 그저 꼬치떠러저서 얼마되지 안흔것 이런것이 조흡니다。 그리고 상자안에 너흘때는 상자안에다 모래를 약두어치되게깔고그우에다 두어둘것을 서로잘 이맛닷지안케 차차누여 놓것입니다。 그리고 그우엔 또모래를 덥습니다。

그담에또너코 모래를 덥고이러케 궤가차도록 몃번 뚝경을 꽉해서 두어둡니다。

두어두는 채소는 살이 무른것은못쓰고 완두(豌豆)나 토마토가튼 비교적 단단한것이 조흔데 아직우리네 가정에선 이런종류의 채소가흔히 씨여지지 안치만 어것은 대단히 조흔채소임으로 우리가정에서도 되도록 움직에 만히쓰는것이 조흘줄압니다。

완두、이것은 채여물지안흔것을 꺼칠채 먹는것인데 이것은 아조 속에 콩알이 생겨나 딸낙하는것을 떠서 꼿을 상하지안케 잘간수햇다가 양력 섣달쯤내서 요리하면 조흡니다。

그리고 이와가튼방법으로 가지、오이도 둘수잇고 토마토도 둘수잇습니다。

토마토는 보통보다 약칠팔일 빨니딴것으로 너흘때 꼭지쪽을 우흐로 보내고 서로 맛닷지안케 너습니다。

토마토나 파실을 익히는법 토마토나 밀감、감、복송아가튼것을 너무익지안흔것을 저장해두엇거든 정월、이월경에 끄내서 역시 궤짝가튼데 쌀겨가튼것을 노코 그속에 그것들을 파무더두고 뜨뜻하게 해줍니다。

그러케해서 이틀밤 이틀낫을 두어두면 푸른틔 토마토나 파실이 제대로 곱게 익습니다。 겨울에 이러케해서 쓰면 얼마나 빗이나겟습니까。

자라는 아이들의군것질

무리가아니다

세끼먹는것으로는부족 농농이론무어이조흔가

우리네 가정에선 아히들 음식에대해서 별노주의하지 안습니다 그러나 외국가정의 어머니들을보면 아이들 음식먹는것 군것질하는것에 여간 마음을쓰지안코 할수잇는대로 아이에게 조흔방법으로 먹입니다。

아이들이 낫에 무에먹고 시퍼서 킹얼거리면 고작해야 일전한푼식어주면 그것으로 요즘파리가 찌를갈겨부처노흔 파자나 아이쓰케키를 사서먹습니다 이러케만 해가지고는 아이들의 영양이 조와질리가업고 어머니의 아이기르는 정성도 부족하다고 안이할수업습니다 아이들을 잘키르는것은 반드시 돈이만어야만 되는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정성이 파 주의로되는것입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낫의 간식을시키는것보다도 끼니를하로세번식 먹이는것이조캣다는의견이 의사들에게서 나왓습니다 우리네 가정에서야 아이들에게 간식하나라도 제대로시켜주는 어머니가 극히드믑니다만은 어쨋든 아이들에게 간식을시키는이보다 하로세끼식을네번이나 혹다섯번에 먹이는것이 조타고합니다。

아히들은 어른들처럼 한꺼번에 만히먹지못하는고로 분량을 적게해서 여러번먹이는것이 조흡니다。

아히를 밥주머니 즉위장도 네시간을돼야 다소화되므로 네시간에 한번식 먹이는것이 조흡니다。 예를들면 오전칠시、오전십일시、오후세시——어떠케 먹이면 조흡니다。

만약이러케 하로에 네끼식 못먹이게될때는 간식을 주는데 할수잇는대로 소화잘되고 영양분이 만흔것을노 주는것이 조흡니다。 군것을주는데는 아래와가튼 여러가지 조건이잇습니다。

一、소화가 잘될것

二、곳배만부를것은 제며고

三、함수탄소를 주원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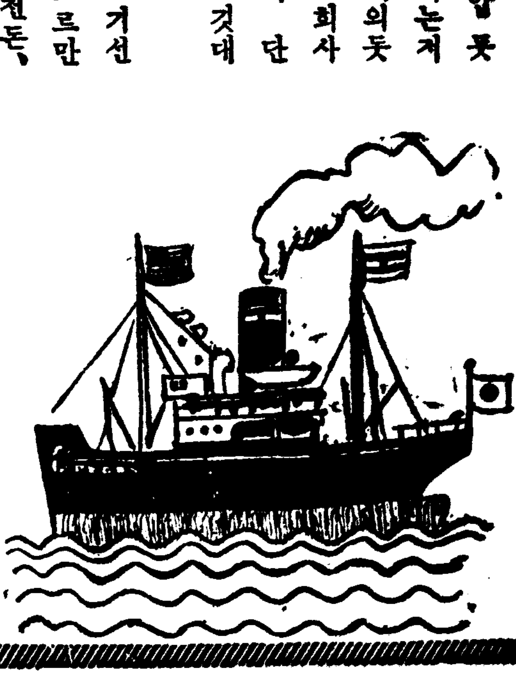
四、담백질 지방질의 음식은 조치못한데 예를들면 고기、생、계란、오징어등。

五、실과、엿、감주、떡、파자、등은 조흡니다。

六、분량은 너무 만히주면 제때에 밥을못먹게되니까 조금주는게 조흡니다。

七、아히들도 배오는날가튼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만하여지면 제미적고 밥에자거던에 파자가튼것 아주는게 조흡니다。 아이들은 아니라어루울로 그래야합니다。

우리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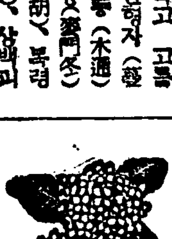
기선의깃대

기선을보면 맨압폭데에는 그배가 가는저쪽나라 깃대 뒤의돗데、에는 그배의 회사깃대、맨꽁문이에 단깃대는 저의나라 깃대 를단다。

세계에서 제일큰 기선은 불란서의 「노르만더」호인데칠만오천톤。

(공산사랍 정순모)

長篇小說



愚氓

朴泰遠 作 洪祐伯 畵 【77】

崔主簿의집(十)

신작로라고는 하지만 시골길이란 역시 그다지 편하할수는 업섯다。 가뜩이다 혼란한 머리속이 빨리 달리는 차체의 진동함에 따라서 더욱 어지러웁다。

나아가는 앞결에 무엇 하나 걸치는것이 업는 넓은 벌판위도 여름 밤의 시원한 바람을 가득히 실고서 자동차로 재넘을 향하여 나간다。 이밤에 한껏 맑게 개인 하날에는 보름달조차 교교히 떠 잇섯다。 그러나 좌석 한구퉁이에가 힘업시 고개를 뒤로 제치고 마치 정신을 일흔이 모양으로 몸을 내여 던저 아무러케나 안저잇는 화수는 달빛의 고흠도、밤바람의 시원함도 도무지가 알안곳이 아니엿다。

자가 조고마한 장거리를 풍우 가티 몰아 나아간다。 몰라 나아갈때 뉘집에선가 개가 유난스리도 컹컹컹 지젓다。 그러나 화수는 개짓는 소리조차 듯지 못한다。

(안악에서 한걸음이라도 멀지기떠나자。 최건영의 집에서한 걸음이라도 멀지기떠나자…)

달리는 찻속에서 화수가 생각하고 잇섯던것은 오직 그것 한가지엿다。

생각하면、장수산서 나려오자 직시 건영이 남매와 헤여지는 것이엿다。 그들의 집까지 따라 오기가 잘못이다。

그러나 실정을 토하여 말하자면、평생에 처음 대하는 순결무구한 처녀 옥전에게 화수는 진정으로 사랑을 느꼇던터이다。 그러킬래 장수산에서 나려와、건영이가 다시 함께 안악 자기집으로까지 놀러 가자고 말하엿슬때、그러지 안허도 그리 쉽사리는 옥전이의 겨틀 떠러지고십지 안혓던 화수는 거꺼히 따라 나섯던것이 아니엿더냐?

(그래、그들을 따라 안악으로까지 왓던것이지만……)

단 한시간이 못되여 어떠케 도망군이처럼 이곳을 떠나게될줄이야 참말 누가 잇서 능히 예측하엿스랴?……

(그의 집까지 따라가진 갓더라도、그방 밧게 가서 그들의 하는 어야기를 엿듯지만 안햇더라도……)

화수는 새삼스러히 그러한것을 생각해보고 가만히 한숨지엿다。

건영의 조부、최주부가 기어코 자기를 보고싶다 하엿슬때 화수는 물론 그것이 어인 까닭인지 당장 알어낼 턱이 업섯다。 그러나 방에서 물러 나와 문득 생각하니、건영의 조부는、어찌면 자기를 손녀 사위의 후보자로、선이라도 보려 하엿던것이 아닌가?——그러한 추측이 섯다。

건영이가 누이 옥전이와 자기의 사이를 접근시키려고 노력 하는것은 화수가 화안하게 짐작하는터이다。 그 생각은、어찌면 그의 집안 어른들이 한가지 가지고 잇섯던것인지도 모른다。 그래 자기를 그방으로 불러 물엿던것이나 아닌가? 그러케 생각하면 어째 꽉 그럴것 갓기만 하다。

그래 최주부가 명하는 그대로 한번은 사랑으로 물러 나오기도 하엿스나、잠시를 가만히 잇슬수가 업섯던 화수다。

자기를 이러케 박그로 내여보낸 그뒤에、옥전이의 조부어른은 건영이 하나만 불러 안처노코 대체 어떠한 은근한 이야기가 잇는것일까?——

화수는 어쩌지 그들의 이야기의 내용이 자기와 옥전이에게 유리한것이것만 가태서 견딜수 업섯다。 알고시픈 충동이 매우 강렬하다。 그래 그는 일찌기 업던 버릇이엿스나、마치어둠을 기화로 다시 안으로 들어가 최주부 누어잇는 바로 창 미다지 압까지가서 그들조손간에 하는말을 엿들엇다。

그러나 방안으로서 들려 나온것은 뜻밧게도 백백교에 판한것——、화수는 차마 그들의 이야기를 끗까지 듯지 못하고 박그로 달려 나와、아무도모르게 안악을 떠난것이다。

藥用

有效殺菌劑 …… 配合

クラブコドモハミガキ
구라부고도모하미가기

新發賣

一罐……十전

日本で一番よい藥用子供歯磨です

兒童의齒質에最適……
—어머니들의念願이達成

당신의애기들을明朗하고 튼튼하게길으려면、하로라도速히クラブコドモ齒磨로이를닥는習慣을길드려주십시요。クラブ의コドモハミガキ는兒童의齒質、口腔粘膜에第一조코獨特한藥効로、이를튼튼케하고、健康을增進합니다

맛과香氣가大端히甘味……
—애기들이 조아서닥게돼

애기들에게、愛用クラブコドモハミガキ를주면、「서로다토아서…」닥게됩니다。아무튼애기들이第一실혀하는刺戟이업고맛、과香氣가非常히달고爽快합니다。아침은勿論就寢前의齒磨에도즐겨쓰게됩니다。兒童의齒磨는クラブ의コドモハミガキ가第一이라고齒科先生이대단히推奬합니다。

黴菌을死滅淸掃……
—虫齒를豫防하고身體를튼튼케

이러케兒童用으로만들면서、普通齒磨와달리、クラブコドモハミガキ에는、有名한殺菌劑가配合되고、吸着殺菌淸掃力이훌륭합니다。그리고副作用絶無、虫齒와口臭의原因이되는口中의黴菌을、死滅시키고虫齒를豫防하고齒牙를튼튼케합니다。

KH—2

無趣味의 辯

金晉燮

問題가 무슨 無趣味展이 나가든면 좋라도 아모리 생각해보아야 文人趣味展에 出品할만한 趣味라고는 하나도 가지지 못했는데 審選入選의 如何를 不拘하고 期於히 出品하라니 딱하다。이런機會에 번번치못한 自己를 다시한번 反省해보다면 아마도 天下에 나가티 沒趣味한사람은 보기도 쉽지 않을것이다。일직이 나는 다른이들이 흔히 趣味로서 假令 或은 花草를 각구고 或은 書畫를 모오고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餘裕에 參與해본적이란 없기때문이다。實로 不幸한人生이라고 自嘆치않을 수없는바이지만 그만한 餘裕를 가질수도 없고 또 마음도 없는 生活狀態가 至極靜狀態이니 어는수없다。나는 散策히 말하노니 生後로 바둑장기는 한번도 두어본일이 없고 映畫求景은 가본지가 어미 數年前의 追憶에 屬하며 花草이름이라고는 不過 數種에서 더알지못한다면 고만이다。무릇 世上에 나가티 趣味와 먼 人間은 求하기 힘들것이니 都大體 여기 엇던사람이 조흔趣味를 갖은다는것은 그가 무엇보담도 아름다운것에 對한 理解를 갓는다는것을 意味하고 동재로는 그의마음이 內的으로 調和되여잇다는것을 意味하는것이며 그러므로 趣味에 만흔사람은 그의心情이 얼마나 豊足하고 그의精神이 얼마나 高尙하지 하는 事實을 말하는것인데 나는 아름다운趣味、高尙한趣味에 마음을 頹廢시킬만한 內的調和를 일쳐기 한번도 가질수엇는을 省察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즐길할때마다 純粹한美를 認識할만한 能力을 가지고있고 그래서 그것을 羨慕히 事業할수있는 趣味人을 우리가 이世上에서 차즐수있는 가장 高貴한 貴族的人間으로 여기는機會를 나는 갓는다。그러나 忽然 여와가티 無趣味한 나일지라도 趣味를 가져보랴하는 努力이 全然업는것은 아니다。더러가다가면 조그만땅에 花草를 심어보랴는마음이 動하고 한가한때이면 別로 그런때도 업스나 映畫求景이라도 가보고 생각은하지만 어떠한 餘裕의 조그만計劃도 무한누어서 생각하다가 그時間을 일코야 말기가 일수이니 花草를 심으랴는 돈이 내게 이 아니오 映畫求景을 가기때문에 일어버리지도 알수업는 나의 貧寒한 休息時間을 엇코십지가 안흘뿐 또한 어찌하야! 이떼 나에잇서 흥하 趣味는 結局 一時의 交遊에 그치고 만다。나는 趣味를 一種의 貴族的行樂으로 羨慕하는 偏見을 지닌것이 아니지만 趣味는 그러나 어느程度까지 物質的餘裕의 힘을 기다리는 나는 元來不幸히도 精神的調和를 마음속에 求하지못하였음마다 物質的餘裕를 잇지안는限에 잇게되고보니 나의 傳統的狹隘 갓곳하고 잇는것이다。事情 여 어와가튼므로 無趣味한 나를 變할때마다 O君의恨...

「知性의 自律性」의 問題
―그의 眞實한 理解를 위하야―

❶ 安含光

(運) 筆者는 年前『知性의 自由와 介意할바업다는、幸福스러운 無感性 하나 事態는 正히 反對로서 人類의 文化發達에 있서 그 精神이라는 論點으로서 知性의 問題가 그릇된 論理의 우에 서 用되고잇는것에 對하야 批判을 試한일이 잇다。하나 그것은 特定의 論文에 對한 單純한 批判이엇슬뿐으로『知性』의 問題를 全面的으로 取扱한것은 아니엇다。한데 最近에와서 또 知性의 問題가 여러가지趣意와 여러가지 角度에서 論議되고잇슴을 보다。이에잇서 우리는 어떠케든 知性의 正當한 解明을 위하야 생각해보아야할때이라고 생각한다。大凡 어떠한 問題이든 그것이 하나의 時代的 性格을 갖고 登場되는거기에는 반드시 그만한 理由가 잇슬것이 事實이라할진댄 現今의 知性의 問題는 그가 提論되어지는바『理由』를 那邊에 가지고 잇는가? 하는것부터 생각해보는것이 이야기의 順序일상 싶다。그理由를 自明케하기 위하야 爲先 現今에잇서 論議되어지는 바 知性의 性格은 어떤것이냐(?) 하는것부터를 생각해볼때에 極히 槪括的으로 이야기하야 그는 非知性主義에 對한 抗議라고 斷言할수가 잇다。다시 말하면 非合理主義에 對한 抗議가 곳 그의 性格이란것을 否認할수는 업슬것이다。

(論) 이와가티 知性의 性格이 元來로 非合理主義에 對한 抗議라할진댄 知性이 論議되어지는 오늘이란 時期는 知性이 居處하고 活躍할 자리에 非合理主義가 代替하면서 잇다는 消息을 表象하는것이나 아닐까? 外在的 時代的 理由는 그러하고 그러면 그의 內在的 理由는 어듸에잇는가? 勿論 實際에잇서서는 原因의 究極的 條件을 內在나 外在性으로 分離하는 거와가튼 二元的解釋을 許하는것이 아니지마는 推理上便宜로 分離해서 생각해볼때에 그의 內在的 理由는 知性의 問題가 곳 人間의 問題—知識階級의 問題라는 곳에잇다。

其實 얼핏 보기에 메라괴지한 高尙한 世界에서 잡아오거와 가튼 이『知性』이란것이 結局은 **(人)** 間을떠나서 存在할수 업는것이며 따라서 知性의 問題는 곳 知識人의 問題 乃至는 知識階級의 問題가 아닐수업게된다。世上이 바로 좋건 외로좋건 다시말하면 合理主義的이든 非合理主義的이든 그러것에는 一切

悼亡詩

水畫漫筆 (十)

湖岩

世間의 悲哀가 여러가지 잇에 悼亡詩를 꼽자면 얼마스되 그중에 가장 애를 끈든지 잇지마는 가장 人口에 膾炙하는것은 金秋史의 濟州謫中에 잇슬때지은 悼亡詩이다。
人生의行路를 돌이 걸어 가다가 一人만의 隻影이 남아잇슬때 얼마나 孤獨의 悲哀를 느끼겟는가。그의 悲哀가 북바치는곳에 흥은 寡婦歎도 되고 흥은 鰥夫歎도 되는 바 이 鰥夫歎이 곳 悼亡詩이다。

那呼月姥訴冥司。來世夫妻易地爲。我死君生千里外。敎君知我此心悲。

古今을 通하야 悼亡詩가 며도 만흐나 漢士에 잇서서는 唐代元微之의 悼亡詩가 가장 有名하고 權威에 잇서서는 各가이 申紫霞의 悼亡詩로할 하야도 前後十一首에 達하며 그것이 大家의 솜씨인만큼 모다 典雅한속에 悲哀를 갈추어 일흔바에 悲而不哀하는 士君子의 道를 일치아니하엿다。申紫霞外에도 近代名家중

秋史보다 또는 紫霞보다 뛰어납서서 顯宗때 詩人으로 孫谷李瑞雨가잇는데 그의 悼亡詩가 또한 有名하다。이것이 비록秋史의것에 比하야 이絕句의 槪意는來世에 夫婦가 서로밧귀여돼서 내가 죽고그대가 살아서 나의이 悲哀를 그대가 한번體驗해 스면하고 아라가워하는 말이엿다。

玉貌依稀看忽無。覺來燈影十分孤。早知秋雨驚人夢。不向窓前種碧梧。

이 槪意는 그리워하던 亡妻가 어렴프지 보이더니 깨트리족 꿈이로다。窓下의로 운 그립자。부질업시 梧桐

秋史의 悼亡詩는 深刻味와 切實味로 斯界의 上乘인바 어기訂正함)

悼亡詩의 正反對인 寡婦歎을 그린것이다。으로말하면 鄭象觀의 寡婦歎이라는 五言絕句가 잇다。

寡婦當秋夕。靑山哭日哭。下有黃稻熟。同耕不同食。

이것은 흔이 俗人의 입에 올으내리는 名句로서 그槪意는 寡婦가 八月가위날 亡夫를 생각하고 그墳墓에 올라가 해지도록 운다 웨우느냐하면 山下에잇는 저누른벼를 함께 심그고도 가치먹지못함을 恨해서 그리함이다。

어듬의 悼亡詩와 寡婦歎이 漢詩의 格調로는 어떠한지 모르나 一般世間에 널리 歡迎을 받는 名句들이다。

(訂正 昨日本文題目『靈山의 飛蝗』는『國際詩의 秋植』어기訂正함)

寶林寺의 再吟味

(長)(興)(篇)(四)

宋錫夏

國寶로 指定되지아니한 寶物이 四天王像이 잇는데 指定이안된것은 아마 製作이 後期에 屬한다는데 나온것인듯하나 木刻으로이와가티 壯想이 奔豪하고 手法이 大膽한 것은 報恩俗離山法住寺에서(?) 볼것以外에는 아즉 보지못하얏다。이는 어느 時代의 作品인지 未詳하나 只今으로 二百七十三年前인 顯宗七年(康熙五年)에 重修한 記錄과 一百六十一年前인 正宗元年(乾隆四十二年)에 火災로 因하야 脫落한것을 卞食知의 亡財百餘金으로 改工하얏다하는 文記를 보면 現在의것은 其時에 大部分新作한것이라고 斷定하여도 無妨할것갓다。이四天王은 寺의 入口 天王門인 兩便에 二軀式 倂立한것으로 高가 約三、八二米 假量되는 것이다。그리고 四天王에 關聯되는 재미잇는 民間俗信이 잇기로 이에 附添하면 不義의 男女關係로 妊娠해서 落胎하나면 四天王의 눈동자를 깍지 못에다 버리면 成功한다는것이다。이俗傳은 南部海岸에 比較的 普遍的으로 盛行하는것인데 飯鈴에 잇는 石長柱(長性牛)에도 이와가튼 俗傳이 잇서서 俗謠에『너거조와 맨든子息 내눈깔어무슨罪냐』고 불리우는것이 말한다는것과 갓다。

四天王以外에 木彫로한 金剛二軀 가잇는데 手法이 四天王과 거진 同一하며 現在 一軀는 四天王 녀편잇고 一軀는 莫別한 에 지 그어 지를 하고잇다。또하나 木彫像(코끼리)가 法堂內에 잇는데 이手法亦是 類似하다。以外에 塑像으로는 本尊이 잇고 가장 美術的으로 재미잇는것은 羅漢十六軀인데 이또한 何時代의 作品인지 未詳하나 顯宗十五年(淸康熙十三年)에 重修함이 古錄에 보이다 그러나 時代의 遠近은 姑置하고 그 美術的價値는 相當히 노프게 評할만한것이다。

大雄殿아페 마루를나무한개 가잇는데 이는 古老의 少年時代부터 現在와가튼 모양으로 時代를 超越하고 毅然이 屹立하고잇다하며 傳說에는 普照禪師가 巡錫할때에 세운것 이라한다。그러나 그眞否는 모르거니와 前述한 普照禪師의 彰聖碑에『…表禮以法力施于有政是以乾元二年特 敎植長生標柱至今存焉…』이라는 句節이 잇슴을보아 元表禪師를 嘗한 長生標柱와 關聯이 잇지나안는가한다。

長生標柱는 옛날에는 寺에 허이잇든 習俗인듯하며 梁山通度寺에는 石製長生標柱가現在까지 保存하야 國寶로 指定이되어잇다。그러나 어때木立柱가 반다시 元表禪師의 長生標柱인지 또는 長生標柱라 하더래도 當時에 建立한 바 로그것인지 또는 後에 累次 建立하엿는지 又當初에는 生木을 세운것이 後에 火災가 잇서 제는 廢頹하야 國寶毘盧舍那佛을安置한 法堂은 蕭條하기 짝이업스며 四天王을 鎭坐한 天王門은 비가새고 게와가 부서저서 그대로두면 未遠에 後 羅漢만 修理하얏스니 二百十四年間을 그대로 내버저 두엇스니 奇異하게도 毀損되지 아니하고잇는것만이 奇蹟이다。그나마 羅漢이 별반 훌륭하지못하고 殿內壁畫가 剝落되나 어려니와 兩者가 모다珍貴한것이야 어찌서 그대로두는지 한文化財 遺香을 保存하여야 二十二年이 되며 그後十年後에 新羅하얏스니 顯宗으로 顯宗五年에 再修하고 다시 五十年後에 이 傳하였다。

晦할날이 반다시 잇슬것이다。그리고 第一 時急을 要하는 것은 羅漢殿으로 顯宗五年에 新羅하얏스니 七十二年이 되며 그後十年後에 다시 五十年後에 어찌서 그 原因으로 美術的價値는 다른機會에 미루기로 하겟다。

어와가티 寶林寺는 만흔國寶와 準國寶를 가지면서 조素之團와 寶樹의 花理로 이 小作料 八十石으로는 所田이 不足하다고 하니 本山가튼데 서라도 그費用을 支出하야 羅漢殿과 天王門을 重修함이 佛徒로서 佛陀에 對한 重大한 義務가 아닐가한다。뿐만아니라 長興官民으로서도 남이가지지아니한 天下에 자랑할 至貴의 寶物을 가지고 잇것만 無意味한데 費用을 드리는 것보다 이點에 對하야는 文化的 意義가 잇슬것이다。이러케 同地方人士의 鄕土愛的 良心을 責하고저한다。별반 因緣이 김지 아니한 筆者까지라도 當局者와 鄕土關係方面에 運動한바 잇스니 이機會에 湖南의 勝地가 되도록 하기바 란다。이곳은 榮山浦에서 自動車로 한時間 다시 步行四五十分이니 湖南地方의 하아킹에도 便利하다。어寶林寺外에 松廣寺를 맨들고저한다 곳으로 寶林寺圖書에 同寺 李泰和大德의 懇篤한 便宜는 勿論이러니와 有名한 僧樂寺 任實어 보인바에는 修飾없이 感謝하겠다。(高峴은 金剛山下)

松都雜記

貧民村絕景 (三)

蔡萬植

내가 寓居를 하고잇는 理이 聚東洞, 이름만 듣어도 선득선득한 동네다 南山町이라는 新名이 업는게아니지만 그것은 開城府의 公文이나 면지봉투에 쓰이는 이름이지 이곳 住民들은 아직도 聚東洞으로 통하고있다。귀에도 익어한다。

이 聚東洞이 開城의 貧民村이다 果然 貧民村 다웁게 都心地帶로부터 훨신 떠러저 鐵道線路以南 龍岫山기슭 東西로 차지하고잇고 가난하면으레 食口는 만흔것이지 집 晋地 數가 千이 넘는다。허기야 聚東洞도 요새는고래등가튼 기와집이 새로섯는 척 들어서고 해서 壹種의 貧民村이라고하면 不平일런지도 모르것스나 그것은 富者가 何必 貧民村에 들어와서 사는것이 不察이오 따라서 그만不名譽스런 말은 듯는대도 無可奈何다。

貧民村에 富者가 산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지난해 가을에는 이곳으로 부터 느닷업시 라디오 兼用의 電氣蓄音機소리가 들리기 시작햇고 그 담날의 며에구하더니 晋樂이 언 새 봉지 속에서 열매는 하루하루 삶이 올라가고 하다가 마침내 가을이 되어오면 몽쭈레한 사파알이 가지가 찌저지게 주렁주렁 매달린다。

이때에 비로소 秋收의 기쁨에 다만 秋收와 기쁨이 먼접 숏는다。이러한 생각하면서 언제 이、그놈을 돈으로 바꾸기前고 나는 果園을 탐낸다 일도하고 재미도보고 生計도 엇고。

聚東洞 가운데서도 가구비우 라고하는데 一理로 조그만 내가 居處하는 附近은 果園이 만흔데 無心치 아 안하다。

공것을 바래면 이마가버서 진다던 光주로 공짜 蕃樂이 기자면다 진다 저문 나는 가끔 낮잠에 일의 妨害를 당하야 하니 참으로 天道가 無心치 이놈을 果園 가운데다가집을 지어노코는 그야말로 아 물쓰자 며누리 食口가 잇는 대루 다나와서 전포나 새 나 일로 熟가을 내려 積功을 다 리고 거름을 못부다 가지 젠다。 거름을 버린다 열매를 잡어준다 주어낸다 봉지로 싸준다 마처 어 다 애기거처한듯한다。그리하는 동안에 꼿치 지고 열매가 맷고 이파 피어 하 가 마침내 가을이 되어오면

한 果園에 어떠케 엇다 첫 千餘株씩이 되 그보다 줄 너 큰놈 또 가다가는 몃천주씩 도잇고 果木은 大槪 가 사과요 배나 복사를 것 디리기도했다。

그리하니 한 푸른 나무가지의 한가닥 해 어 늘 그린 사 과 가 부 터 봄 파 아마 바 나무 가지도 뜨렷하 고 四月 그믐경 山野의 다 가지의 香氣의 조 오 月 하 복숭아 꼿이 피어 그윽한 香氣를 풍기우면 한 幅의 그림 갓다。새 봄이면 피는 한 빛깔이다。

文人趣味展

漢詩募集

題 梧桐
押 陽
限 七月十五日

學藝消息

府內明治町二丁目『오리온』二階우에잇는『草藪』草藪大館에서는 一般藝術家의 圖成하는 畫家와 趣味畫家들을 請하야 十五日까지 展覽을 開催하는바 六圓 入會金二圓이라는바 申込은 明治町二丁目 茶房『오리온』으로 하라고한다。

新刊紹介

▲時兆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淸涼里町 時兆社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二錢

▲新人間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慶雲町八八 新人間社 振替京城一〇一一八番 定價十錢

▲京城教育情報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敦龍町 敎育情報社 振替京城二六六五九番 定價二十錢

▲專賣 第十號 發行所 京城府永樂町一丁目 專賣局內 朝鮮專賣協會 定價一部五錢

▲官話中國語自通 文世榮著 發行兼販賣所 京城府堅志町三二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〇番 定價一圓 送料十五錢

▲復活運動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孝子町五八 復興社 振替京城一一八七〇 定價五錢

穀象 (三)

女流短篇

崔貞熙 作
崔根培 畵

오늘아춤 일즉이 남이는어제 저녁 자기네모자가 밥도 못먹고 한 남의 웃옷을 가리를 내여 찬장에 가서 主張해야는 밤에 안에 밤에 자기는 어떠케 남이가 남편에게 내려고 하다가 그만 정지를 구라도 「아이구 또 가져갓구나」하는 소리가 오면서 속이 거서 엇지를지 번에 속에서 한이 잇는데 그러기를 두번 세번 번가 내려지엇다。

그러나 그날밤 남이는 아니지만 남편이 밤마다 억지로 밤이 안나왓다。남봇그 우에서 큰소리 할수도업고 거저는 남편이엿다 하긴 남이가 어리엇을 처음 당하는것은 아니엿다。요만지도 밤에 들어와서 남의옷대린것을 흥기여 들어와서 남편 이 밤에 개구녕으로 하면 남이는 하나 ...

남이는 어제 면 어저나하는 생각에서 그냥 주저하고잇엇다。남이는남편이 떠나고 어서 이제 갓는가는 종종 속으로 웃는 남편이 잇을듯 하니 다가는 문앞에서 「여보!」 소리 가 들리어서 끈두밤히 이러나 문을 열어보앗다 누구는 남편의 음성은 다시 업고 밖에는 밤이 옷날 당에 나오는 남편이 오수수 떠러지 는밤이 또 그러치안음이 비가 착 착 내려 붓는 밤이 그러고 눈보 라가 윙윙 휘몰아 치는 밤이 남이의 말을 구슬프게 헤매든 어엿다。

남이는 저 문밧게 들리는 소 리가 분명 남편의 음성이어 돼지 라고 말속으로 빌며 여전히 문 밖에 귀를 기우리고 잇섯다。「여보!자나!」

음성은 다시 들렷다 남이가 숙아서 문을열어보는데와 가티 귀가를 스쳐고 지나가는 음성 이 아니엿다 아주 또렷하게 남 편의음성이지 손에 잡힐듯 들 어왓다 남이는 그만 정신이 아 질해져서 벽에 귀를 드 분명 몹하게 어려 ...

「문수를 찰키워서 남편의 복수까지하리라!」

어려케 면하 말으로 죽업 거렷다。이것은 남이가 남편의 문해서 절망을 느끼고 죽엄까지 생각햇다가 마음을 돌리는 때 으레 하는 결심이엿다。남이 의 생각엔 문수가 인표와가티 되지만 말엇스면 훌륭할것 가텃 다。

어떤 그의심리가 인표의 모색 을 달은 문수를 발견하면 문 수가 꼭 인표와가티 되는것가 티 무서운생각과 절망에서 자 기도 모르게 악이 치바치는것 이엿다—아니 악이상의—사람 의속 저—한밋바닥에 잠재해 잇는 그곱음 마음까지 죄다터 져나오는것이엿다 이것은 남이 뿐아니라 남편으로해서 불행해 진 여인들이 행용가질수잇는 병 적심리라고나할까。엇잿든 그들 은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남 편이요 그자식의 아버지를 닮는 것을가장 실허하는것이엿다。

문수가 이런사람의 기괴한심 리를 알리가 잇섯스랴。알엇드 면 어머니가 그처럼 때리드래 도 그런 슬픈생각은 안햇슬터라 어표는 작년여름바로 이맘때도 라와섯다。이따금씩 창에뿌리는 비소리에 밤이길도록 잠못이루 는남이의귀에『여보』하고 부르 는소리가 휘지나갓다。비소리에 화실치는 못하나 그것은 틀림 업는남편의소리든해서 남이는 머 리를쳐들고 바깟의인기척을 다시 가기울엇다。

당장 문을 열고 내다보고십 은마음이야 불보두하지만 도독으 로 얼굴을 만서보고 주먹을쥐고 가슴을 두다려보고 손까락을 펴 서 귀수구녕을 쥐어보앗다 꿈 인가 아닌가 시퍼서 얼굴을 만 지면 꺼칠꺼칠한 손이 피부에 닿어지고 가슴을 두드리면 드렁 탕탕 소리가 느껴지고 귀 구녕을 쥐이면 손까락이 몰속 이는대로 간질간질하면서 바 게 비소리가 똑 딱 딱하고 꿈이 아니라고 남이는 자신햇 다 바깟선그사어에 멘번은『여 보 여보!』불르며 삽작문 흔 드는소리까지 낫다 남이는 화 실히 꿈이아닌것을 알자 아무 런 주저도 공포도업시 문꼬리 를 달그락하고 벳겻다。

오년을 하루가티 밤이면 늘 잠거두든 문꼬리를—。결국두 리구두 다시 대못으로 빗장을 질러두든 문꼬리를—남편아메 선 아무런 공포도 주저도업시 벳겻든것이다 그리고 문을 활 작 열엇다。

『나야 나 내가 왓서』

남편은 문여는소리에 다시소 리를 처렷다。남이는 자기도 모 르는사이에 인제 마루를 내려 섯스며 신발을 차저 신엇는지 한거름에뛰여삽작문께로 나갓다

『아이고 왓구마』

그는 삽작문을 열기도전에 이 러케 부르지젓다。비뿌리는밤이 어둡고 또 사이에 삽작문이가 리여서 어둠속에서 남편을 전 신에 느끼기 이서는까닭이다。 하나 방에 들어와서 풍잔불이 켜진뒤의 남편은 남이가 어둠 속에서 느끼던남편이 아니엿다。

不老長壽　強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一十円

電話光化門 三四九三番 園成社
S·M·C 제즈밴드
◇臨時特別超豪華興行◇
七月八日부터
園成社直營
調査第一回大公演
노래……춤……텐스의 大混合線
우시라!웃으시라!
숨이탁탁 막히는 爽快한 第一線 텐스의 떡간
하루밤을 S·M·C째즈밴드가가장자랑하며 내놋는 傑作 爽快한『멜로디』와 꿈과 幻想 의甘味한 포도酒의 幻想을 마음것 맛보시라
▲出演 金元浩 申根 申卿鳳
朴聖林 南一燕 金仁淑
劉鄕妻 李英都
텐스 ‖ 七月九日부터 晝夜二回公演
◎其他短篇映畫同時封映

松竹キネマ
7月6日10日上映時間表
ニュース 2·33—3·00 6·50—7·17
からくり花形 11·00—12·08 3·05—4·13 7·19—8·27
輝く肉體美 12·13—12·46 4·18—4·50 8·32—9·04
國民の誓 12·50—2·28 4·55—6·33 9·08—10·47
明治座

七月八日 晝間早日三日間特別公開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 均一
毎日三回興行 一時 十二時 二回 二時
午後 三回 七時半
伊太利네로 니프로超特作全發聲日本版
필티난드 모지오리 監督
메리 오랍 남데이 레다구로리아 共演
다 메 곤 필 드 위 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뽀 레 드 두 메 一 야 一 監督
スパンキ將軍
嗤ふ假面
松竹大船超特作全發聲
스팡기 마구 봐탈드 조이 미부스 호르스 主演
妾なき侵入者
笠智衆 佐分利信 高野道子 岡村文子 主演
深田修造監督
追加謹告 七月七日은支那事變勃發一週年記念日로주부가休館하오니海諒하시압소서

第一劇場
九日ヨリ十二日マデ 四日間
階下席 十錢均一公開

大毎國際ニュース
笑ふ青春
大河内傳次郎 主演
敵前上陸
出世前守
毎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一三
第二回 二、三〇
第三回 七、八八
永樂町 本局 二〇 四
中央館

營農의基礎인 作物品種의改良 ②

品種改良의意味

人類의作物 栽培의 歷史를 보면 品種改良의 結果라고 아니할수업다 옛날 品種그대로 栽培하고잇다면 아무리水利의 便이良好하고 肥料를 만히施하드래도 到底히 今日과가튼 優秀한 米를 만히 收穫하는것은 不可能할뿐아니라 도리혀肥料때문에 稻가쓰러지고 病이생겨서收穫皆無에 이르기쉬운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今日의 稻品種에 滿足할수잇는가하면 決코그러치는 아니다 絶對로 病이걸리지안는 强健한 品種으로 一層多收穫할수잇는것 或은좀더맛이엇는것等等만흔 希望을가지고잇다 品種改良이라는것은 其父母가 가지고잇는것보다 우리가 要望하는 바와가티 좀더 良好한性質을가진 品種을 選擇하고 또는 우리의 손으로이것을 만드러내는것이다 品種改良이 可能한것은 지금 세상사람이 疑心할必要도업스나 農事試驗場은 今日까지에 水稻、大小麥或은 大豆等의 改良品種을 多數히 選出育成함에 成功하고 엇는것은 周知의事實이다 品種改良이라는것은 우에서말한바와 마찬가지이나 一般은 一層더욱 良好로 어떠한 … 使用하는수가잇다 … 에옛날부터 栽培하고잇던 品種을 選하고 收量品質共히 어보다優秀한品種을 他地方에서 移入하야 栽培하는場合 或은가끔品種이라고하더래도 不純한 種子와 純正한種子와를 바꾸어 栽培하는場合 卽種子更新가튼것도 品種改良이라는것은 … 改良한다든가 或은 우리손으로 새로운品種을 만드러낸다는것을 除外하고 단지 品種의取捨 又는 種子更新만을 品種改良이라고 생각하는이도업지안흐나 이것은 勿論잘못이다

(三)品種改良의方法

어에對하야 말하기前에 먼저 알어두어야될것은 作物의 品種이 가지고잇는 [illegible]의 形狀과 性質中에는 子子孫孫에 이르기까지 잘傳하야 變하지안는性質과 子孫에게 傳하기는 傳하나 其四圍의 栽培條件 卽 氣候、風土、土地의肥瘠等을 考慮치안허서는 아니된다

(가) 純系淘汰

오래前부터 우리先祖가 作物의種을 採取하는範圍에 行하야온方法으로서 今日에도 一般農家에서 行하고잇는 方法이다 [illegible] 純系淘汰라는것은 … 其品種固有의形態를具備하고 … 年年이 選擇하야가는것이다 이方法은 多年栽培하는中에 어떤程度의 品種改良을 期待할수잇스나 其効果가 나타나는데에 … 大粒의大豆만을 選擇하야 하드래도 翌年은 大粒의大豆만을 收穫할수는업고 … 그래서 最初에 어 … 가는것이다

(나) 系統淘汰

前述한 … [illegible] … 反復하는것이 安全하고도 必要하다

胚芽米七分搗等의 精密한 貯藏試驗

米穀課를 主體로하야 穀檢、試驗場을 總動員

非常時局下의 食糧國策上 資源節約과 國民保健、體位向上의見地에서 胚芽米、七分搗米食의普及은 刻下의急務로 되어잇는데 朝鮮米는 內地移出을主體로하고잇는 만큼 그것을 長期貯藏할수잇는가하는 問題가 疑問視되어 關係當局이 憂慮하고잇는데鑑하야 總督府米穀課에서는 穀物檢查所를 動員하야 夏季多濕期에 잇서서의 混砂白米、無砂白米、胚芽米、無砂七分搗米의比較貯藏試驗을行하고잇고 어데 仁川、釜山에서는 朝鮮糧米工場에依囑하야 各試供米의 搗精을마치고 目下 貯藏試驗을하고잇는中인바 本試驗은 朝鮮米을 混砂白米에서 胚芽米或은七分搗米에 轉向시킬수잇는가 업는가하는 總督府當局의 方針을決定할 最後的 技術試驗으로重視할것으로 자못慎重을期하고잇는데 具體的調査項目으로서는 各品種의 正味重量、減耗、色澤、食味、비타민B의 變化狀況、病蟲害의 發生狀況을 調査하야 優劣을比較하는것이다 調査의正確을期하기 爲하야 모든調査機關을 總動員하고 病蟲害程度及비타민B의變化는 水原農事試驗場細菌檢查所及 京城醫專에서 調査하는中이며 內地에 잇서서의 貯藏의 實際를調査하기爲하야는 大量의 試供品을名古屋에送付하고 目下 穀檢에서 係官이 出張하야 朝鮮米協會員과가티大大的調査를하고잇는中이라한다.

飼養蜜蜂의 採蜜量增加

比前年一割四分增

昭和十二年末現在朝鮮內의 蜜蜂飼養戶數는 九百六千三百六十七戶 其飼養箱數는 十九萬九千二百三十七箱으로 採蜜量은 八萬三千三百七十六斤 價格은 八萬七千百七十九圓이다 飼養箱數가 자장만흔곳은 昨年의 最高位를占한 江原道로 總數의 十八、九%를 占하고엇는데 採蜜量은 平北의 十六萬九千六百三十斤이 最高를 示하고엇다

그런데 어것을 前年末에比較하면 飼養戶數에 잇서서는 一千七百五十六戶의 增加임에 反하야 飼養箱數는 三千三百九十六箱이 減少하엿고 採蜜量은十萬五千五百九斤價格은 四百五十五圓가 各各增加하엿다

朝鮮五月中 肥料貿易

總督府調査＝五月中의 朝鮮의 肥料輸移出入貿易高는 如左하다

	五月中	一月以降累計
▲輸出		
魚粕	[illegible]	[illegible]
硫安	[illegible]	[illegible]
石灰窒素	[illegible]	[illegible]
米糠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輸入		
籾	一,一〇〇	一,一〇〇
米糠	三,六〇六	三,八二
其他	—	二,七六六
計	一三六,八〇四	一〇六,七一三
▲移出		
乾魚	六六	一〇,四三一
魚粕	四六〇,〇〇一	[illegible]
獸骨	七,四四四	三六,三三〇
硫安	一〇六,〇〇四	四四六,一一七
石灰窒素	一〇〇	一〇〇
過燐酸石灰	四〇,五四四	一四〇,五四四
硫燐安	一七,六六五	二一四,八六一
硫加燐安	一七,三〇〇	一四四,三一四
調合肥料	五〇,二六〇	三〇〇,八六七
米糠	一六一,一一七	[illegible]
豆粕	六六,七六六	四一七,〇一四
棉子粕	一,一三〇	四,一三〇
其他	一五,二一八	七六,六九一
計	九四一,五〇九	[illegible]
▲移入		
硫安	一五三,一一三	四一六,四一二
石灰窒素	一四一,五四〇	二三七,八〇六
過燐酸石灰	三二一,〇六〇	一,三〇九,五一二
其他의化學肥料	一六六,七六六	四四六,九七七
調合肥料	三三一,一二三	八六四,一七一
菜子粕	五	六六,一〇五
其他	一,四七五	二〇,一三四
計	一,〇一七,八二三	[illegible]

事變의經驗으로 馬政의變更

東北地方에서 買入한六百頭 全部農家에 無償貸與

陸軍에서는 今次事變의 經驗에 鑑하야 軍用馬의 素質向上을圖키爲하야 馬政計畫의變更을 要望하고잇는데 十二年度부터十五個年計畫으로써 開始된朝鮮의 馬增產計畫은 當初부터 軍用馬의供給을 目的으로 樹立되어잇느니만치 陸軍今次의 要望은大部分에미어잇을 實施하고잇다 地低、體幅에 豐富하고 骨稜이 豐富한 小格乃至中格輓馬의 生產을 根本方針으로하고 種牡馬는全部이를 國有로하고 種牝馬의 種類의 整備改善을 爲하야 原則으로이를 國有로하고 農家에는 單只貸付하고잇슴에 不過하다

따라서 特히今回馬政計畫을變更할必要는업스나 內地에 比하야 人的要素는 那로하더라도 朝鮮의 諸條件이 馬의增產에 適當하므로 頭數增加를 要望하는 點에 어에 應키爲하야 現在增產計畫의 擴張及이에 伴한種馬場의 增設이 考慮되는同時에 從來잘못하면 悍威非凡性 所謂競馬專用馬의 獎勵에흐르기쉬웟든 競馬의 指導方針에再檢討를加할 必要가잇다 總督府로서는 競馬의 廢止보다는地低、體幅에 豐富한 軍用輓馬를獎勵키爲하야 障碍競走長距離競馬를 强制하게될 모양이다 또現在의十五個年計畫은四萬頭의 增產을 目標로 昨十二年度에 北海道로부터 移入된種牝馬는 百二十五頭이엇는데 十三年度는 約五倍의 六百頭가 北海道東北地方에서 買込될모양으로此等은 全部農家에 無償貸與하고 生產된 仔馬는 各各此等農家의 私有로 하기로하엿다 하다

增產計畫은세웟스나 問題는原料難

平和回復後 酒精工場의運命?

酒精

一滴의血液이나 一滴의 까소린이나하고 其貴重함을 血液파다루는 까소린의 代用으로 알콜이 登場하엿다 사람을 天下泰平에 놀리는알콜이 一滴이 自動車飛行機에 不可缺한 燃料가 되다하니 때는 果然非常時이다. 알콜混用法이 專賣法과가티 成立된것은 昨年의 第七十議會에서다。此等 兩法의 目的은 까소린混入實施에 따라 工業用알콜의 需入用에 事用되여 販賣價格의 統制가 要望되는것을 防止하는데 잇는바 그를爲하야 工業用及 混入用의要方의 알콜을 專賣로하고 製品의 引受販賣를 政府의손으로하고 價格과需給의 統制를하기로 된것이다。

當局의 混入計畫은 昭和十九年度의 까소린豫定消費量 千百萬石에 對하야 二割混入을 目標로 二百二十萬石의 無水알콜이 必要하게되는데 本年度에는 알콜의 生產力不足을 考慮하야 七月一日부터 十二月三十一日까지의 半年間에 內燃機關用의까솔린 需要量의 四分之一에 對하야 五分의 混用을 하기로하엿다 卽 混用率은 十二年度부터 七個年計畫으로 生產增加에 따라 漸次增加시켜 豫定의二十%에까지 達하게할려는것이다。

그러므로 今後의 豫定計畫을 達成하기 爲하야는 製造能力을 노피고 一方 어에必要한 原料인甘藷의增產을하여야하는데 이것이相當한難問題이다。

爲先製造計畫에 對하야 數言하면 昭和十九年度의 二割混用에 必要한 無水알콜은二百二十萬石인데 이中六十萬石은 專賣局에서增產하기로되어잇스므로 內地豫定計畫으로는 百六十萬石의製造를하여야한다。어를爲하야 專賣局에서는 十二年度豫算에 알콜工場新設豫算 四百八十三萬圓을 計上하고 鹿兒島에 工場의建設을始作하엿는데 現在까지에어미 竣工되야 試運轉乃至操業을 開始한것의 左의五工場에 達한다

一、千葉縣稻毛工場 五月十七日부터操業

一、茨城縣石岡工場 六月一日試運轉開始

一、鹿兒島出水工場 七月末부터 操業開始豫定

一、宮崎縣高鍋工場 同前

一、熊本縣大津工場 同前

어에繼續하야 專賣局에서는다시十三年度豫算에 八百七十七萬圓을計上하고 앞을增產計畫에大蓄能하고잇으나 後述하는原料調達問題와關聯하야 豫算消化가圓滑히될가는 注目을要하는바이다

一方民間工場에잇서서도 알콜需要激增에呼應하야 增產에增產을거듭하고잇다。

一、昭和酒精 어미神奈川縣川崎工場에서 年產八百石의 操業을하고잇는데 다시 熊本縣八代에工場建設中

一、樺太酒精工場(王子系)…同社의計畫은 製紙工場에서생기는 「펄프」의廢液을利用하야 알콜을 鑑化할려는것인데 年產三千三百石이라하나 當社와 專賣局間에 買入價格의 點에잇서서 異論이잇서 不成立

一、東亞酒精…群馬縣 木崎에工場을建設中인데 十月末부터操業開始豫定

一、南洋興發…南洋群島에 工場어잇고 砂糖을原料로하고잇다

어와가티 製造計畫은 樹立되엿스나 또한가지의難關이잇다 그것은卽 原料甘藷問題이다 燃料其他外地에서는 砂糖을使用하므로 原料도潤澤하고『코스트』도低廉하나 內地에서는 全部甘藷를原料로하는데 甘藷만으로 原價의七割、一가롱當 十錢이라는高價이다。本年度의 製造計畫은 無水알콜 三萬石、無水알콜十九萬石 計二十二萬石에 必要한 甘藷는 七百二十六萬貫이라하는데 어의栽培面積으로 一萬二千町步가 必要하다한다

그러나事變下에잇서서 農村의 勞動力不足도잇고 그우에 澱粉業者가 日本의甘藷의三割을 消費하고 食用에供給되는것이 五割이나 消費되는 殘餘二割뿐이라야 燒酎業者와 酒精工場의爭奪戰을 演出하고잇는터이다

어러한狀態이니만큼 今後八百七十萬圓의豫算을消費해야되는 官營工場其他의 增產計畫에應하는것은 容易치안코 그意爲하야는 다시새로히 四萬町步의 耕作面積이必要하게되는데 事變下에잇서서는 勞力關係와『코스트』關係로 거의不可能할것으로보인다 其對策으로서 政府는 農林省과 協議로 甘藷原料耕作指導資金五十萬圓을計上하엿스나 이것으로는 큰効果를 期待할수업다.

다음에 한가지問題는 平和回復의時期가도라오면 大增產으로 膨脹되엿든 酒精工場의運命이如何히될가하는것이다。이미操酎聯盟에서는 平和克服과同時에 政府는 酒精工場을 投賣할것을豫測하고잇스며 酒精工場에서도 까솔린에混用되면 스타ー는가곳고金融을使用하는性質이엇스나 耐久性에잇서서는 普通까솔린보다落다는長點도잇스니 恒久的產業으로될것을 考慮하는것도 無防합것이다。

鎭南浦苹果 二三割減收豫想

【鎭南浦】年大百萬貫이나 生產되는 鎭南浦苹果는 最近摘果를 畢하엿는데 收穫豫想은 昨年實作에比하여 아모래도 二三割가량은 減收되리라고 豫想한다 그러나 그와反比例로 苹果價格은 二三割昂騰하리라는바 今年收穫도 五百萬貫은 無難히 突破하리라고한다

麟蹄名產生梨 近來稀有의凶作

麟蹄名產中에하나인 生梨는每年그生產額이 五千餘圓을 突破하는 現狀이엇섯는데 今年의結實은 昨年에比하면 全部가六七割이나 減少되어 近來稀有의大凶作을 難免케되엿다 그래서邑內全部를 보면 結實에全혀업는 果木이 許多하다 그런데 凶作의原因은 昨年의 凶作으로 花芽가 弱하여젓데다가 開花期에 驟시가물고 바람이불러서 꽃이 떨어지고 허시들어지고 바람에 떨어져서 그리된것이라한다

咸南春繭共販 豫定量에接近

【咸南支社電】咸南의 春繭共販은豫想以上으로 그出廻가 旺盛하야 五日까지의 共販總量는 九四、八〇〇으로 豫定의 九萬三千貫을 內薄하고잇다 그中定平永興高原文川의 四郡은 벌서豫定額을 훨신超過하얏다

六月中淸津港 貿易總額

開港以來新記錄示現

【淸津】淸津稅關支署의 統計에 依하면 去六月分淸津港輸移出入 總計는 八百九十四萬三千六百八十五圓에 達하며 一月以降累計는 五千二百四十五萬六千三百二十二圓으로 開港以來의 新記錄을 示現하엿다

輸出에 잇서서는 依然滿洲方面의 購買力旺盛으로 日用品輸貨가 增大된點이 特色이고 移入은 先月의 六百萬圓臺에는 未及햇스나 前年同期에比하면 實로 二倍의 激增을보엿고 그內容은 亦是 土建界의 活況에 따르는 建築材料의 移入이 만흣다 輸移出入別貿易表와 重要輸出品은 如左하다

一、貿易別

▲輸出入額 一,〇九三,〇二三圓 (一月以降累計 一〇,六六〇,六四四)

▲移出入額 七,八五一,六六二 (同 累計 四一,七九五,六七八)

▲合計 八,九四三,六八五圓 (同 累計 五二,四五六,三二二)

一、品別

▲輸出 [illegible]

▲輸入 天日鹽 [illegible]

▲移出 大豆 [illegible] 便化 [illegible] 林檎 [illegible]

▲移入 小麥粉 [illegible] 人絹布 [illegible] 綿織物 [illegible] 鐵類 [illegible] 木材 [illegible]

產業메모

長期戰下의 代用品工業으로『글래스·파이버』가 生產市場에 登場하야 硝子衣服도 全혀 꿈으로서 끗나지아니하엿다 이것은 多年研究한 結果『글래스·파이버ー』를 實用化하게되엿는데 研究室製品으로는 先進國을 凌駕하는호號한것이여서 石綿고무의 代用品으로서 實用化하게될것이다 明年度부터 『스테이플·파이버』와 混紡하야 織物이市場에 나올것이라하며 燃燒되지안는다는點에서 消防夫의 外被를만들計劃을 가지고잇는 紡織會社도잇다 더욱이 現在는 蓄電池의 外部保溫用布、電線의 被覆皮等試驗的으로 製造되여잇는데 從來에 多額輸入을보고잇는 石綿고무의 代用으로 等을 들수잇다 資源이 缺乏한我國에잇서서 重大한役割을 演하야 드디어 國策工業의하나로 登場한것에다 이 『글래스·파이버』는 硝子八十%曹達灰十五%를 原料로 生產되는것인데 그 製品의 特徵은

一、保溫力이 엇는것

一、比重이 輕한것

一、民虫이 부지안는것

一、酸에 腐蝕치안는것

『글래스·파이버』

生絲價昂騰으로 利原繭價一割引上

【利原】咸南利原春繭共同販賣는 郡農會에서 咸興片倉에 지난五月廿九日부터 販賣하는데 처음價格보다 生絲市勢昂騰으로 約一割以上이 昂騰하엿스므로 養蠶家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한다

優等	一貫	三圓七三	四、一二
特等	〃	三、四三	三、七九
一等	〃	三、一三	三、四七
二等	〃	二、八四	三、一四
三等	〃	二、五五	二、八二
四等	〃	二、二五	二、四九
等外	〃	一、九六	二、一七
中繭	〃	一、三七	一、五二
屑繭	〃	〇、七八	〇、八七
玉繭	〃	一、三七	一、五二
薄皮	〃	三、〇〇	三、〇〇

漁船機關의 取扱合理化를爲해 座談會開催

【咸南支社電】咸南道水產會에서는 漁船機關의 事故防止 燃料油의 節約等을 圖謀하야 合理的으로 取扱하기爲하야 다음과가티 日程으로 座談會와 機關監檢을 施行하리라고한다 出席者는 船主 機關士 船長으로 元山府에서 아래와가티開催한다고한다

▲八月十一日午前 船主 午後 機關士 船長

▲同十二日 船主 船長 機關士의 合同座談會

▲同十三日 機關監檢

安眠

여름밤은잘자려져不便합니다 그래고팔습니다 그러므로睡眠不足에되지계쉽습니다 夏疲의한가지原因도거기엿습니다 그것을避하려면就寢前에赤玉ポートワイン을잡수십시요 잡수는氣分이快適해서 말할수업는안온한氣分에들고 또一方으로 血液의循環을조케하는作用도잇서서 흠뻑快眠을誘致합니다 잘자면그만치夏瘦의豫防에도効果가잇스며 또한優秀한榮養素를가지고잇스므로 그런點으로도夏瘦의防止에 効果가잇는것입니다!

美味 純良 葡萄酒

赤玉ポートワイン

포ー도와인

소아건위정장제

小兒健胃整腸劑

ベービー散 베ー비ー산

藥價 參包入 二十錢 五包入 三十錢 九包入 五十錢 二十包入 一圓

全國藥店에잇슴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發賣元 株式會社 新井藥房

電話本局(二)一〇〇〇、四一六八、四九 振替口座京城三五三四 一七六八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머리가몹시아플때……노ー신

골치가걸려 지끈지끈 쑤실때……노ー신

갈간히번두 머리가열을때……노ー신

ノーシン 노ー신

頭痛이아니라도 머리무겁고 흐릿흐릿할때나

過度한讀書로 睡眠이不足할때나

술을過飮하야 그뒤日氣分이 좃치못할때나

이노ー신 한봉만잡수세면

神出靑紗하게도 나을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신대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집니다

이藥은全國賣藥店에잇습니다

各藥房藥店에도무러보십시요

이商標에注意하십시요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東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三五三番

本報慶北支社 大邱府京町 電話一四四三番

七月八日早朝 東寶映畫大作 … 軍用列車 … プラウンの千兩役者 ジョー・E・ブラウン氏主演 … 西鄕南洲 … 支那事變捷戰ニュース

優美館 電話三九五

入院生의大多數는 環境惡의犧牲兒

感化敎導에도가지가지苦心

別天地人生記錄 ② 永興感化院을찾아서

元山特派員 卞龍甲記

이 영흥학교에 수용한 소년은 전조선 십삼도에서 선발된 불량아의 선수(?)들인만큼 그들의 불량행위가 단순치 안코 다기다단하야 정상자(正常者)의 심리와는 상상도 할수업는것으로 그들의 지도교화는 세상에서 상상하던바와는 딴이한바이잇다 그래서 그들의 감화교호도 정상자처럼 해서는 기대한 교육적효과를 거두지못하는것이므로 동교에서는 그들세게에서만 통할수잇는 독특한교육방법 즉 우감적(大感的)인 바러교육을 시행하고잇다. 지금 파수원에서 파실을따먹고 막나오는 소년을본 선생은 솔적모르는체하고 그아동이 아프든날것을 기다려

先生 너 저파수원에드러가 실과를 따먹엇니

兒童 그런일 업습니다

先生 그럼그곳에서 무엇햇니

兒 그곳을 지나오는길입니다

先生 바른대로 말하는것이 조치안니

兒 똑바른대로 대답한것입니다

그제야 선생은 성을내며

先 내가이곳에서 보고말하는것인데 정녕코 바른대지안켓니

兒 정말 따먹은일업습니다 죽어도 업는것을 엇더하겟습니까?

이상과가티 그는 끗끗내 부정한다 어에선생이 도리혀 자기눈을 의심하고 그아동을 더 책하지못하고 마는것이다. 이것이 정상자의 경우라면은 정미잇는 이말에 『네따 먹엇서요』하고 용서를 청하얏슬것이로되 그들은 현장을보고 바러적으로 추궁하고 증거를제시하지 안는한 정직한 대답을하려고하지안는다 그것도그럴것이니 그들은 어린사람으로 벌써 섣년기의 사람도 어려운 대답하고 전율할 불량행위를 부지기수로 하얏고 또한 경찰의 날카로운 눈총과무서운 문초아래서도 태연자약하게 부인일관하던 버릇이 부지불식간에 그의 정신을 흐리게하야 선생아페서도 완강히 부인하는것이라하겟다.

그러므로 그들의교화란 어떠한점에서 정상자와 마찬가지로 압서 시를주고 아무리 효과를지울하는 정도의지도는 다하는 이다 여기에서 이상소년을 지도하는 돌연한 교육방법이생겻다. 이화교아부(阿部)교장은 오당이 충북부사회과에 잇섯고 그당시 이감화원설립에 진력하얏스며 다시 전남(全南)도사회과장으로 잇스면서 오로지 조선사회사업방면에 심혈을 경주하던분이다 씨는 감화교육에대하야 다음과가티 말한다

이상자의 심리란 시시각각으로 천변만화(千變萬化)한다 이러한 아동의 교화란 정상자를본위로한 책상에서 생각한 교육론과는 상위되지안는다 그들가온데에는 살인, 파괴, 쟁투, 방화, 허언, 유탕(遊蕩)겸인이 엇는가하면 절도가잇고 사기한이 잇스며 그중에는 또한 정신박약자(精神薄弱者)와 정신저격자가 섞여잇는터이며 가정환경이 또 각인각이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둘에 둘을 가하면 넷이된다는 정상자의심리가 아니고 둘에 둘을 가하면 여둘이 된다든가 또는 다섯에 다섯을 가하면 넷이된다고도 자기판단에 의하야 결론을 부치어 혼자 긍정하는 심리다 그러므로 그들의 감화교호는 가르치기전에 먼첨 그들로부터 배워야되고 익혀야 된다 저의세계 이상소년의 차지못한 심정을 파악하고 그심정에 맞는 지도를 해야될것이다 감화교호의 지난(至難)한은 불면불휴의 노력도아니고 인고극기(忍苦克己)의 행자적(行者的)생활도아니고 근직단정(謹直端正)한 성자고(?)의 수양도 아니다 소년의심정을 발키고 감화교호의 기미를 파악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정신분석화 정신의학 변태심리학 교육와 범죄사회학 성능감별법등의 연구를 통하야 저들의 독특한 세계를 드려다 볼줄아러야된다』

그러면 이상소년이란 어떠한 가정환경에서 자랏기에 그처럼 교화가 어려웁게 두뇌조직이이상당가? 이것을 일일이 들어보면 불량아는 모두 가정적으로 불행하다 빈곤의 희생자이고 불어 가정의 파탄에서 나온 자이고 설사 가정을가지고 부모를가졋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혜택을 박지못하는 불행아나 변태 용인동의 아동이 대부분이라 한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편모, 편부슬하에서 부성애 모성애를 모르고 잇는자며 계모와 계부의 학대를 버서나기 위하야 적의길을 걸은 가엽슨 자며 조실부모하고 조부나 조모의 따뜻한사랑에서 자란자며 양부모의 몰인정에서 집을뛰처나가는자며 살들이나 형제에게 반감지안은 선세를지고 잇는자가 총 입원생의 절반을 점령하엿스니 그들이 가정적으로보아 얼마나 불행하엿슴을 엿볼수잇다 그리고그들의 삼분지이가 배움의길을빼앗기고 반대방향으로 다라낫스며 나머지의 거이전부는 소학교의 일년내지 사년을 마춘 정도이다 자정의불행우에 배움을 기회까지 일흔그들의 갈곳은결국은 낙오자이엇든것이다

다시그들의 입원당시의 연령을고찰하야보면 십어세로부터 십오세의간이 전수의 삼분지이를 차지하얏고 그중에도 십사세와 십삼세가 제일만흔것을보아 한창발육하려는 시기에 불량을가리지안코 불량행위를 하는것을 알수잇다 더욱그들 대부분의출신도가 상공업이 발달한 경남, 경기, 평남, 함남등지인것으로보아 세상의 급격한 진보의 반면에는 퇴보자 수배하는것을 알수잇다 사람여럿 원래선(善)에 나아 일이된다.

이상파가티 입원한 대부분의 소년이 환경의불행에서 불량에 위협한만큼 먼첨그들에게 가정에(家庭愛)를 주어주고 가정의 생활미를 양하야 인간의 새로운 가정 파근로에서 착게하야 쉬기일전을 축하야될것이다

이화교에서는 한개의기숙사와 일곱개의 가족사를 두엇다 당초는 기숙사에 수용을 하고 아동의성질 연령을고려한후 당한기회에 가족사에옴긴다 사에는 사감(舍監)이잇서서 한 아동파친식을 가티하며 가족사에는 보모(保姆)나직원을 중심으로 사오명의아동으로 한가족을 고친식을가치하며 교양에 당하고잇다 이리하야 전체를 통하야 일대가족을 형성하고 그가족애를 기초삼아 교화에매진하고잇다

(寫眞上은 算術朝鮮語敎授光景 下는食堂—永興感化院—)

(게속)

十五年間事業으로 旱害克服에邁進

共勵水組를設置年次로改良

平南道서具體案樹立

【平南支社發】평남도에서 한해(旱害)지대개량에 적극노력중이라함은 기보하엿거니와 그개량계획의구체적내용을 들어보면 우선 한해지에 공려수리조합(共勵水組)이라는것을 만든후 여기에 안전한시설을 가하여 한해에서 버서나도록 하려는것으로 매년이백정씩 실시하여 십오년후에는 한해를 우려하는곳이 도모지업게하려는것인데 매년이백정보씩의 개량시설을하는데의 필요한 비용은 사만원의 오할인 이만원은 국고보조(國庫補助) 나머지 오할인 이만원은 기채로 충당햇다가 연부상환(年賦償還)하여 도내수답전부를 옥답으로 만들려는것이다 평남도내에잇는 한해지대는 기보와여하 약삼만정보로 안주(安州)평원(平原)량군내의 이만오천정보는 소화수리조합(昭和水組)이 실현되는때에는 당연히 그몽리구역내에 편입될터이므로 문제에부치고 남은오천정보를 십오년동안에 전부개량하려는것인데 일반지주들은 이천재일우의기회를 노치지말고 당국의계획에 협조하여 국채수행에 진력하기를 희망하고잇스며 공려수리조합이라는것은 보통수리조합과는 전연성질이달른것을 일반지주도 재인식(再認識)하야줄필요가잇다한다

伊川地方에風雨

交通杜絶、停電騷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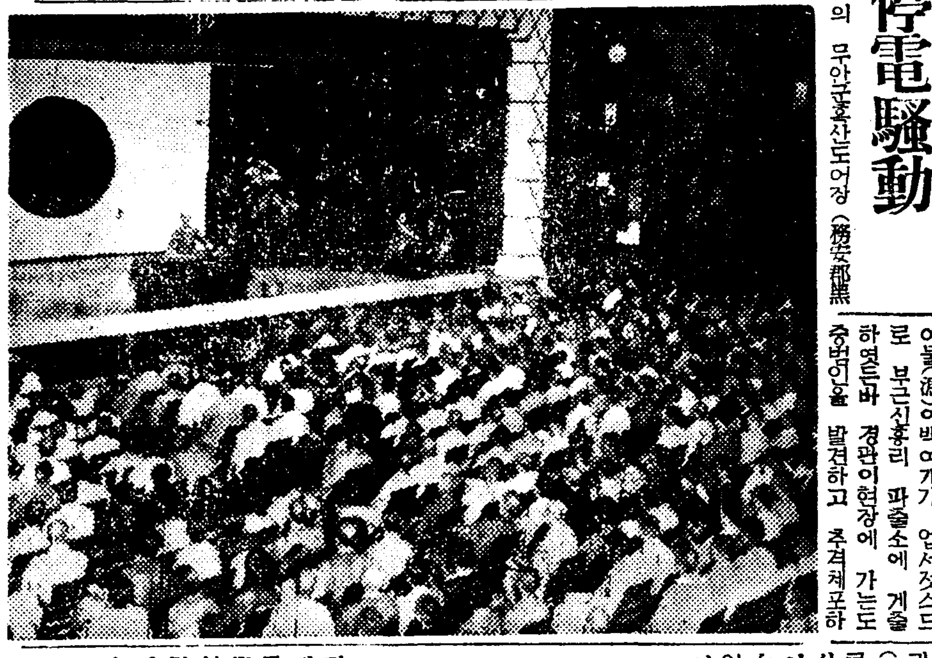
【伊川支局電話】강원도이천지방에는 지난칠일부터 나리기시작한비는 수일을 계속하야 구일오전열시까지에 총우량이 백한미리에 달하엿는데 오전두시부터는 폭우로변하야 이천읍내에는 전선에고장이 생겨 정전이되엿는데 이대로가면 구일저녁에도 복구될것갓지안타 그리고 이천원산(元山)간 삼등도로에 자동차통행이 두절되엿스며 각지에 농작물피해도 불소하리라고한다 만일이대로 비가더계속되면 이천지석(支石)간과 이천 안협(安峽)간 이천시변(市邊)사이에도 자동차통행이 두절될우려가잇다고한다

川岸中將第一聲

四千聽衆感激할뿐

【平南支社發】천안(川岸)중장은 불후의 무훈을 세우고 귀환하는도중 평양에 들리어 평양역착 열차로 군관민 수천명의열광적환영리에 하차 호텔에드럿다가 오후여덟시부터 평남군사후원연맹과 평양부 공동주최로 신공회당(新公會堂)에서 개최된 현지보고 대강연회(現地報告大講演會)에 림하여 성구(聲咆)가가흔 어조로 두시간동안이나 열렬 강조하여 사천청중을 감격케하고 열시가 넘어산회햇다 천안중장은 하룻밤을 평양에서지낸후 구일오전 열시삼오분 수천군관민의 전송리에 평양역을 출발하여 경성에 향햇다

(寫眞은川岸中將의現地報告講演會의光景)



黑山島臨時郵便所

七日부터開始

【木浦】목포우편국(木浦郵便局)에서는 흑산도어장(黑山島漁場)에 림시출장소를 설치한다함은 기보한바이어니와 지난칠일부터 우편 위체 저금전보등사무를 취급하게되엿는데 바로개시한지 삼시간동안에 벌서전보취급이 백통이상에달한 성황을 이루엇스므로 어현상을보아 매일적어도 전보취급은 백통이상이되리라고 본다고한다

前科六犯또 窃盜타被逮

【鎭南浦】지난칠일오후여섯시경 진남포신흥공설시장 김모의상점 주인이 잠시어대를 갓든사이에 어물(魚物)이백여개가 업서젓스므로 부근신흥리 파출소에 계출하엿든바 경관이현장에 가는도중범인을 발견하고 추격체포하여 취조한결과 그는용강군 귀성면한곳동 한광국(韓光國)으로 작년사월십일 진남포형무소에서나온 전과육범인데 그는형무소에서 나온후 형무소부근에서 도야지한마리를 절취한것외 다수를자백하엿스므로 계속엄중 취조중이라고한다

色魔祈禱師

公判에廻付

【慶南支社發】신령시술(神靈施術)이라고칭하야 병약한부녀자를 감언리설로 기도시술(祈禱施術)을한후 강간을 감행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색마의기도사 부산부초량정(釜山府草梁町)일번지 사십삼번지 사천행작(寺畑幸作)에대한 의사규측(醫師規則)안마술(按摩術)침구(鍼灸術)취체규측위반 부녀폭행(暴行)사건은 그간부산검사국 주견(酒見)검사가 취조중이든바 지난팔일에 취조를 일단끗내고 기소하야 공판에 회부하얏다고한다

四戶의洞里서 出家女三人!

【牙山】네집어사는동리에 세여자가출가하여 여자동년이든 동리가잇다 충남아산군 도고온천(忠南牙山郡道高溫泉)여관은 새로신설되는동리라 총호수가 삼사호에 불과한데 그동리에사는 이모(李某)의소실 정성녀(鄭姓女)가 지금으로부터 약이주일전에 우연히집을나가자 뒤를 이어 수일전에와서는 그동리사는 홍모와 김모양인의 소실이 도우연히 출가하엿스므로 그동리는 여자의도망살이 빼치엿다고 그근방사람들에게 한동안 이야기거리가되엿다고한다

詐欺賭博主犯

一年만에逮捕

【鎭南浦】사기도박하고 도망하엿다가 일년만에잡힌 전과사범의도박군은 용강군해운면온정리(海雲面溫井里)출생으로 일정한 주소가업는 도박전과사범 황형귀(黃亨奎)(三)는 작년오월삼일 어부리전경(李天京)(二)이 수백원의 현금을가진것을보고 안주모부호가 현금오천원을 가지고 방금모기생집에 투숙하면서 도박상대자를 찾고잇스니 가치가 기만하면된다고 속이고 동료세명과가치 공모한후 제나로리집과 유곽으로다니면서 현금오백여원을 사취하고 도박하엿든것인대 공범자는 벌써체포되여복역중이나 황은일년이지난 이지음 경성에잠복중 체포되여 지난칠일 진남포서로 압송되엿다고한다

鐵材使用禁止로 上水道工事中止?

古市大邱府尹協議次로上京

【慶北支社發】소화십삼년 사이개년 계속사업으로 총공비 이십칠만오천원예산으로 대구부에서는 부외산격동(山格洞)에보조수원지(補助水源池)의설치공사를 총독부에 신청중이엿스나 공사에착수치못하고 장차단수의 위기에직면하리라함은 본보에 기보한바이다 그후 대구부에서는 닥처오는 하절을앞두고 그공사의 준비로 급수관(給水管)의제조를 모철공장에의뢰하야 제조중이든바 금번에 실시를본 철제로제강령으로말미아마 그제조는 드듸여정지케될것인바 이와가티 철관의제조가 금지된다면 이때까지의 계획은 수포에도라갈것이라하야 고시(古市)대구부윤이 지난팔일 밤차로급거 총독부에 협의차로 출장하엿는데 어는시국관계의국책상 통제인만큼 어찌할도리가 업스리라고한다

003130

七星町길목事件

二審서도八月言渡

【慶北支社發】지난칠일밤에대구역구내 칠성정(七星町)길목에서 공영자동차회사(共榮自動車會社)소유의 뻐스가 경부본선열차와 충돌하여 승객십여명의 사상자를내엿든 사건의 책임자의 하나인 자동차운전수 권기상(權奇相)(三)에대한 과실치사(過失致死)사건은 당시의 책임자의하나인 철도건널목직이인 서전주(徐鍚柱)가 출청하여 주서하엿스므로 그책임문제에잇서서 자동차운전수에잇나 철도건널목직이에잇나 하는것이 문제가되어왓스나 제일심판결은 운전수에 책임이 잇다고하야 금고팔개월의 언도를하엿는데 피고는 여에불복하고 대구복심법원에 공소를하여왓다 이제 이심판결언도는 지난팔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백보(百步)재판장으로부터 전심과가튼 판결을나리엿다고한다

大同社臨時總會

새로운宣言等을發表

【大田】형평사의후신 대동사(大同社)는 본부를 대전으로옴기어 후 활발한운동을 전개시켜오던바 현회장과 간부간에 다소 알륵이생기어 작년과 금년에는 정기총회도 개최치못하고 다소

畜産資源을開發

慶南道에서三日동안 技術員會議를開催

【慶南支社發】경남도에서는 장기전쟁하에 잇서서의 축산자원개발(畜産資源開發)급 축산장려등에관한 축산기술원회(畜産技術員會)를지난 팔일오전 열시부터 도천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좌기사항에 대하야 협의를개최하얏는데 십일까지 삼일간 계속할터이라한다

一、畜産資源開發에關한件
一、畜産奬勵指導에關한件
一、畜牛改良增殖에關한件
一、緬羊奬勵에關한件
一、家畜衛生施設擴充加恩想向上에關한件
一、畜牛共濟에關한件
一、軍需資材供出에關한件
一、家畜屠生의改善에關한件
一、緬羊奬勵에關한件
一、軍用獸皮供出에關한件
一、軍用乾草供出에關한件

事變記念講演

【長項】충남장항에서도 지난칠일 열지사변일주년기념일에 소낙비가나리는아침여섯시 시민다수가 신사에 집합하여 비를마저가면서 전선용사를 생각하며 무운장구제를거행하고 동일오후두시 마동면(馬東面)사무소이층회의실에서 일지사변일주년기념강연회를개최하엿든바 금융조합국민의 정신과 물자동원에대한 감성에 대하야 서천(舒川)군청 이종순(李鍾順)씨가 두시간동안 강연을하여 청중의 감명을주엇다

長篇小說

林巨正

洪碧初 作　金熊超 畫　【132】

피리(十三)

단천령이 하처에서 나섯다 해빨이 다빠지지안햇섯는데 동문안 초향의집을 물어서 차저가는동안에 벌써 땅금이 다되어서 저녁연기 잦긴속에 덜비치나기시작하엿다 차려문 박게서 안의 동정을 살펴보니 안방에는 불이 켜잇섯스나 불잇는안방과 불업는 건넌방이 다기다 조용하야 마치 사람업는 집과 가텃다 주인을 서너번이나 연거퍼 불럿든데

『누가 오셧나보다』

『나가봐라』

건넌에서 꿈지안흔 말소리가 나더니 불업든 건넌방에서 기침이이던 하니가 나와서 차리문뒤에와서 엉성한 바자문으로 내다보며

『그대서 오셧습니까』

하고 물엇다

『지나가는 손이 하룻밤 자자구 왓다』

『우리집에는 손님을 치지안어요』

『잘데업는 손이 하룻밤 재워달라구 왓서』

『글세 손님을 재우지안어요』

『네가 어진주인이냐』

『아니요』

『그럼 들어가서 주인께 말슴이나 전할것이지 네가 주제넘게 재운다 못재운다 어떠망스러운년이로군』

하고 아이년을 꾸지즈며 안방에서 애해하더니 늙은녀편네 하나가 차리문밧그로 나왓다

『뉘 나왓소』

하고 뭇는 말소리로 아이년을 물리내보내든 사람인줄 알수잇섯다

『나는 지나가는 파객인데 하룻밤 자구가자구 왓소』

『우리집에선 파객을 재우지안소』

『파객재우는 집이 어디 따루잇소』

『관소리 말구 얼른 달른데나 가보오』

『나는 파객집 하는법이 며느리파 달으오』

『남은게 무어요 모지라진게요』

『내가 파객집 십년에 어느집에든지 가서 한번 자자구 청한뒤에는 가진구박을 다 밧드라두 그집에서 잣지 달은집으루 옴겨가본일이 업소 이번을 내가 파객집 처음나설때 작정해가지구 십년동안 변치안쿠 지켜나려오는것이데 어떠케 달은집으루 가겟소』

『임자의 작정한 법 임자나알게지 우리가 알까닭이 무어요』

『그러니 달은데루 가란말은 마시오』

『첫재 우리집에는 손님재울 방이 업소』

『방이 업스면 봉당두 조쿠 헛간두 조소 한데잠은 십년동안에 만이 자봣스니 념녀마시오』

『우리집은 녀편네들만 사는집이라 외간남자를 봉당 헛간에두 재울수가 업소』

『삽작안은 내근하다면 삽작바게서라두 자구갑시다』

『그건 맘대루하구려』

『여기 바깥마당에서 자구갈테니 깔구덥흘것이나 좀 빌려주시오 개가 아니바에 맨땅에서야 잘수잇소』

『깔구덥흘게 무어요 원앙금침 잣벼게 말이요』

『원앙금침이면 더욱조쿠 그만못한 객침이라두 조소』

『미안하지만 우리집에는 객침이업서 못빌리겟소』

『가을밤 찬이슬을 맛구 박게서자리면 객침하나 빌려주지안는 그런 인심이 어듸잇단말이요』

『누가 여기서 자랍듸까 달른데루 가진』

『달른데루 가란말은 안될말이구 객침이 업스면 멍석이라두 한입 빌려주우』

『멍석을 빌렷다가 말어서 겯며지구 가면 엇더케하게』

『여보 내가 멍석도적이요 그게 무슨소리요』

늙은녀편네가 혼자말로

『마당에서 잔다구 멍석빌려달라는 파객은 생전처음보앗』

하고 짓거리며 차리문안으로 들어가더니 흔연히 한입을 아여녀파 마주들고 나와서 가만이 복구러 들어다주는데

『무거운걸 들어다주는데 가만여 보구섯소 어서 와 바드운』

『거기 내던저두면 내가 나중에 갓다깔구 자리다』

늙은녀편네가 황공난 말소리로 아이년더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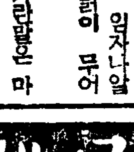
『여기 놔라』

말하고 차리문 바로아페 멍석을 나려노핫다

『끼니때가 지낫는데 군조석을 시키기가 미안해서 저녁을놀며자나 내일 아침한끼 잘해주시오』

『네 진수성찬으루 아침진지를 해드리오리다』

늙은녀편네가 비꼬아서 대답한뒤 차리문을 다더거는데 한동안 지체하고 아이년을 압세우고 들어갓다



牙山支局 溫陽溫泉驛前 取次電話一〇五

メガネ 良品廉價 直輸入卸 金剛商會 仁川府京町一六一七 振替京城二四六七〇番 萬年筆 商報 進星

賣地 壹千參百餘坪 惠化町 東星商業學校橫 高級住宅地 管理人 中島國男 明治町二ノ九六 電本局三四四八番

朝報案內

家具 事務用椅子卓子書箱 挿畫 有時安 三丁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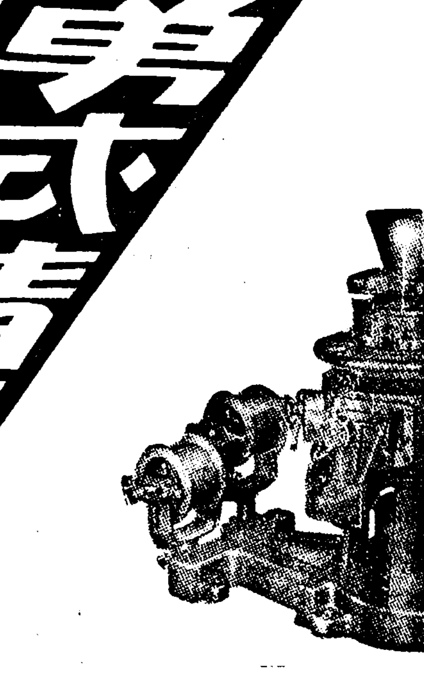
內勤待遇採用 男子 女子 五名 年齡 男子三十歲 女子二十歲以上 希望者履歷書送付 京城永樂町二丁目五六 板谷生命朝鮮支店

駐在所長 滿州、咸興、大田、大邱出張所開設 同地居住者ニテ經驗アル人材登用 優遇ス 希望者履歷書送レ 面會日通知ス 京城黃金町二 昭和生命

淋疾 現今淋病藥ノ無効ト世評ヲ打破セリ トリパノアギプ 强力殺菌劑
驚異的藥効 犧牲的廉價 益好評天下名藥 副作用絶對無함 治淋藥界革命兒 責任附製劑
◀特性 一、아루카리性尿中에서도中和殺菌力强함 一、淋毒菌을速히絶滅 一、尿道粘膜에對해서刺戟作用이無함 一、同時에利尿防腐力大함
◀特約店募集希望者는本社로紹介 要交渉
「各地藥店에有하읍니다 切時는一報大第直時代金引換으로送附함」
有名醫師間絶讚使用劑 梅毒淋毒共全治 主治効能 急性淋病 慢性淋病 尿道가다루 膀胱가다루 睪丸炎 淋毒性關節炎
三日分一円 一週分二円 二週分三円六十 病院用十五円
京城府鍾路六丁目八六番 朝鮮新藥合資會社

最新强壯劑 フェロトン

特約店募集

天下一品 三星式精麥機
絶對無砂無水 碎麥皆無搗減僅少 能率最大는 他の追隨を許さず
カタログ贈呈
總發賣元 合名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2)一四八八 四七八四


M1346 虫退治 マクニン
먹기쉽고、잘듯고、害가업다
夏瘦라고만 決定해버려서는 蛔虫도 退治가안된다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京城府南米倉町

皮膚 チャージ
◎顔面手足거츠름指間무좀股間습종
◎근질근질한皮膚病에꼭한병만쓰면 영낙업서完治됩니다
定價 五十錢、一圓
東京神田花房町

コドモのかぜに オイン

綿業「非常管理」 ①

지금까지 統制經過와 現狀

全「스·파」時代現出

商工省에서는 드듸어 物資動員計畫의 急速, 圓滑한 遂行을 期하야 輸出用綿絲布의 優先的確保를 企圖하고 國內用에 잇서서는 六月廿九日以後 軍需及特殊用途를 除外하고 綿絲, 混紡을 不問하고 一切의 民間使用品의 製造를 禁止하엿다. 이와 同時에 纖維製品의 價格引上을 禁止하고 그의 加工까지도 禁止하기로 決定하엿다. 內地一般의 民需用에는 綿布라고 하는 것은 一切업서버리고 名實共히 全「스·파」時代를 現出한 것이다. 我國의 綿業統制는 昨年秋 原料棉花의 輸入許可制를 實施한 以來 經濟體制가 準戰時體制에서 純戰時體制로 移行함에 따라 次例로 十數 二十數의 統制를 重하야 今日에 이르럿다. 또다시 長期戰의 段階—第二次持久戰의 段階에 들어온 最近에 今次의 措置(國內消費禁止)가 對應策으로서 採用되여 綿業界의 苦難試練은 倍加된 情勢에 이르럿다. 我國의 綿業界로서는 實로 歷史的段階에까지 온 것인바 今日에 이르기까지의 經過를 大略回顧하여보는 것도 有意義하다고 생각한다.

×

即昨年十月來에 [illegible] 原料의 輸入制限과 輸出의 促進을 如何히 할 것인가? 換言하면 最少의 原料를 가지고 最大의 輸出實績을 確保하려는 矛盾은 어데잇는가 하는데 잇는바 드듸어 限定되어잇는 原料로서 最高輸出水準을 維持하려면 結局國內用消費를 一層더 節約하여야 할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이에 政府에서는 綿絲紡生産의 七割을 輸出에 充當하고 殘餘에 對하야서는「스·파」를 混用하야 이것을 國內用에 充當하기로 原則方針을 樹立하고 이것을 基礎로 昨年秋以來 生産配給價格의 三方面에 向하야 [illegible]

官民의 統制를 하엿는데 여기에 綿絲의 生産統制는 規定된 範圍內에서 [illegible] 計畫에 依하야 [illegible] 이 生産統制에 잇서서는 原料의 輸入制限이 [illegible] 綿絲布의 生産計畫을 樹立하고 [illegible] 綿絲布의 配給統制도 [illegible] 國內用으로 [illegible] 用되는 結果 價格統制는 國內用의 [illegible] 國內用輸出用兩方面으로 分割되엿스나 前記의 輸出用綿布의 國內流入은 內外用을 勿論하고 [illegible]

×

이에 統制途中의 [illegible] 의 [illegible] 輸出用綿絲布의 國內流入防止를 [illegible] 依하야 綿絲布의 [illegible] 七月度의 棉花輸入量은 [illegible]

營利企業放棄時代

大統制威壓不安

株式, 商品市場總히 極度沈滯

生絲市場만 統制圈外

事變一周年을 經過하고 淸算市場은 勿論 其他商品市場을 通하야 보이는 顯著한 現象은 統制의 强化擴大이다. 綿絲, 人絹, 羊毛도 最近에 統制를 받고 米는 前年부터 緩漫한 統制를 바다왓스며 砂糖도 近間 統制網에 걸리게 될 것으로 납은 것은 株式과 生絲이다 그러나 株式도 資金統制로 不自由하게 되엿고 貯蓄運動, 公債의 民衆化로 膨脹된 資金도 株式에는 오지안코 軍役의 壓迫을 밧고잇다 唯一의 軍需工業이나 資金의 不安에 잇고 株式市場은 沈

株도 原價高로 利潤을 期待할 수 업서 滿腹的 狀態에 잇스며 平和産業株에 이르러서는 輸出「링크」制에 依하야 僅僅事業을 繼續하고잇는 慘憺한 狀態에 잇다. 이것이 언제까지나 繼續할른지 多年 社內蓄積에 努力하고 잇든 一流會社도 積立金公債化에 恐怖를 느끼고잇다 結局統制의 極致는 國家收用, 個人의 權利利益은 國家權力全體的利益에 絶對服從케되므로 營利企業은 極度

의 幻影에 쪼끼고잇다.

그러나 唯一의 生絲가 國際商品으로서 國際收支의 適合上重要作을 가지고 잇스므로 事變下 統制圈外에 屬하여잇다. 따라서 오모와꾸 投機의 唯一의 對象이 되여 沈滯에 끔적도 못하던 各地市場은 오모와꾸 連들이 生絲布, 人絹 羊毛의 代償으로서 地內消費의 源增, 生産의 減少로 큰 것으로 [illegible] 注目되나

大統制로 생각하여도 눈에 보이지 안는 擴張지안을 모양이다 따라서 即賣의 一時的 停止로 早急한 價格의 公定等은 臨時的

朝鮮은 當分間 「스·파」混用認定?

朝鮮에 잇서서의 綿業統制의 經過는 자못 注目되고잇든바 殖産局長이 東京에서 政府當局과 折衝한 結果 朝鮮만은 當分間 「스·파」混用을 認定하기로 되엿다 即

一, 內地는 一, 二年의 「스톡」을 가지고잇스나 朝鮮은 만히 보아도 五六個月分以下인 것

一, 綿布需要量은 內地의 一人平均 三十八碼에 對하야 朝鮮은 僅僅十二碼에 지나지 못한다 하여도 이것은 生活水準의 相違에 因한 것이요 綿布와 日常生活과의 關係는 內地以上으로 密接한 關係에 잇다

하는 二大特殊事情이 잇서 至今 直接 純「스·파」로 直進함에는 困難한 事情도 잇스므로 其緩和策으로서 一定期間 「스·파」의 混用을 認하고 混紡用 棉花의 消費를 容認하기로 한 것 가튼데 混紡比率은 大略 從前과 가티 三割로 決定할 모양이다 其結果 朝鮮은 大體從前과 다름이 업스므로 向後의 所持品도 從前과 가티 販賣를 許可할 터이데 價格統制는 內地에 準據하야 斷行하고 具體的 方法으로서는 內地와 가티 實施前의 一定한 날의 價格을 基準으로 하야 其以上의 價格引上을 禁止하는 方法을 取한 것으로 보인다 또 新綿業統制에 따라 朝鮮産棉花는 一次이것을 紡聯에 收納하고 紡聯에서 朝鮮內紡績業者에게 配定하기로 될 모양이라 한다

目되고잇다 한다 其餘勢는 자못 注目되고잇다 한다 相當히 큰 打擊이 될 것으로 朝鮮으로서는

混紡認定해도 業者打擊

綿製品禁止를 中心으로 朝鮮內綿業統制問題는 內地追隨이나 朝鮮內保護이나 其決定은 多大의 興味와 關心을 集中시키고잇든바 殖産局長의 歸任談에 依하면 어느 程度의 特別取扱은 이미 內地側의 諒解를 어든것이 確實하엿다 具體的 內容에 對하야는 渡東中의 丹下資源商工課長의 歸任까지 明白히할 수업스나

『스톡』僅少에 依한 需要者에 對한 打擊의 緩和와 對支輸出制限에 依한 朝鮮內業者에 對한 急激한 破壞的 打擊의 回避를 根本理由로 朝鮮內用混紡製品의 製造販賣를 認定하고 이에 對하야 一定數量의 原棉配定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支那向輸出品用의 原棉, 配定乃至『링크』를 하지안코 朝鮮産棉花의 獨占的 使用도 承認하지안코 結局 內地「스·프」를 移入代身에 朝鮮向製造를 許可하는데 끄치고 近近實施될 對支輸出의 制限其他情勢의 變化에 應하야 原棉의 配定을 壓縮할 것은 必至로 朝鮮內業者에 對한 打擊은 緩急의 差는 잇스나 避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스·파」混紡率의 大幅擴張은 五割以上의 混紡은 도리어 純「스·파」만도 못하다는 見地에서 內地今般의 混紡禁止를 實施한 點으로

綿業統制로 輸出에 大影響

朝鮮에 잇서서의 新綿業統制에 關한 法令(府令)은 中旬中에는 公布實施할 豫定인데 이에 따라 朝鮮輸出貿易을 中心으로 綿業界全般에 對하야 相當히 큰 影響이 미칠 것이다 即 『링크』에 對한 混紡綿絲布輸出은 滿洲國內의 需要調節如何에 依하야 어느 程度의 制限을 보게 될 것은 明白하고 目下東京에서 進行中인 日滿物資調節會議(朝鮮에서는 丹下商工課長出席)의 結果에 依하야 決定될 것인데 國內의 綿花消費가 極度로 壓縮되는 結果 朝鮮의 混紡用棉花의 配定도 必然的 削減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圓, 「고잇스므로 어예制限을 加하는 點으로

『警察』에 對한 輸出制限은 이點으로도 必至라고 보인다 昨十二年度에는

綿絲	七〇〇斤	三一七五圓
打綿	三九七二〇〇	三〇八、八〇二
綿織糸	(一)三〇〇碼	一、三七六、八〇〇
綿布糸	[illegible]	[illegible]
綿織物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의 輸出實績을 보이엿는바 이外 內地産品의 仲繼輸出이 三百八萬九千二百五十三圓 朝鮮産輸出綿製品의 九割餘는 粗布(十二年 千五百廿萬圓)로 「警察」圓內에 輸出되고잇스므로 어예制限을 加한다

八千從業員失業

中小고무工場全滅?

總督府에서 救濟策講究

新物資動員計畫 重要物資의 民需用使用制限에 依하야 此等物資를 原料로하는 生産工場反販賣業者의 縮少閉鎖는 時局에 依한 不可避의 犧牲으로 相當한 數에 達할 모양인데 不遠間 實施될 고무製品의 制限은 朝鮮內五十六의 고무工場과 八千人의 從業員에 多大한 不安을 주고잇다 京城, 釜山, 平壤의 朝鮮內고무工場은 殆半朝鮮人의 必需品인 고무靴의 製造를하고 잇는데이미 事變에 依한 原料고무의 不足으로 十人以上의 工場이 操業을 停止하고 其他 工場도 四割이나 事業의 縮少를 하게 되여 一千人의 從業員은 街頭에 彷徨하게 되엿다 原料不足이 製造禁止制限에까지 進行되면 打擊은 徹底的이다 釜山의 三和고무 京城고무와 如한 比較的 大規模의 工場은 支那의 分工場에 從業員을 移轉할 것도 생각하고 軍需生産에 轉換하는 것도 比較的 容易할 것이나 大部分의 小工場은 結局自滅도 不得已하다하야 고무工業聯合會에서는 目下其打開策에 苦心하고잇다

는 모양이다 고무靴가 老若男女를 勿論하고 朝鮮人에 잇서서는 內地人의 「게다」에 比할 만한 必需品이므로 고무製品의 製造가 禁止되여도 어느 程度의 特別取扱이 認容될 것도 豫想되나 如何튼 年産千二百萬圓(十一年)의 生産은 大激減될 것이 必至로 總督府로서도 軍需工場으로의 轉換, 他業으로의 轉業獎勵, 全從業員男四千 女四千과 中小業者의 救濟策에 具體的 方法을 硏究하고잇다한다

商議中支視察團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八日役員會의 結果 中支視察團을 結成하기로 決定하고 團員以下를 如左히 決定하엿는데 一行은 來十六日京城發 上海, 南京을 視察한 後 八月一日歸城할 豫定이라 한다

團長 都筑康二

團員 金、洪、堀、驪根、吉岡、松浦

金鑛의 運賃

四割引實施

七月十日부터 一個年間

鐵道局에서는 金鑛鐵道運賃을 從來 三割引이엇든 것을 來七月十日부터 一個年을 期限으로 하야 四割引에 改正하기로 決定하엿다 右는 最初 低品位鑛에만 實施할 方針이든바 産金國策의 重要性에 鑑하야 金鑛全般에 對하야 實施하기로 한 것이라 한다

各市場打診

統制一色의 恐怖

時局認識再强化

株式

一日低價로써 大體底入된 것으로 보이고 整理一巡의 反動高를 期하든 차이라 버릇이 第一段上進은 困難하기도 하야 一段高의 形勢로서 週初東新百三十六圓台 鐘紡二百二十四圓台를 보이엿지만 民需物이 不絶하야 賣押되다가 七日은 事變一周年記念日이라 戰爭이 第二段階에 入하야 時局再認識을 하게 되어 新低價로 떠러지고 八日에는 『스·파』統制强化와 高國問題實施의 重大聲明을 보면서 東新이 百二十七圓 八十錢 鐘紡이 百二十五圓 七十錢에 떠러젓다 漢口가 陷落되어도 蔣介石이 抗日을 繼續하면 本格的長期戰으로 되고 딸러서 統制가 强化될 것이니 投機 오모와구惡化되어 東新百二十圓 前後까지 떠러지고 大阪東新은 昨年低價百二十八圓九十錢을 下廻하야 七圓九十錢에 떠러젓다 鐘紡도 二百十圓擴門이 깨어져 東京大阪二百八圓二十錢에까지 떠러졋섯스며 週末도 崩落되어 當地東新은 事變前에 暴落되어 東京의 昨年底價百二十七圓十錢을 겨우 六十錢 남긴 百二十七圓七十錢이

期米

內地의 大水害로 東京三十五圓二十一錢 大阪三十五圓三十八錢의 高價를 보입올럿어 仁川도 三十二圓五十七錢에 高이엇스나 大水害로서 反動 三十一圓三十一錢에 反落되고 나서 八日은 仁川正租가 九錢八厘로 新高價에 올라가 十三錢 週末에는 五十四錢이엇다 目前 七月一日 現存米發表如何가 注目되는데 統制經濟의 强化, 物價高抑制에 依하야 從來와 가튼 오모와꾸心은 萎縮된 것은 否定할 수 업는 모양이다

는 減殺될 것이다

綿絲

綿業은 擴備再編成을 하야 綿絲의 最高價設定으로 可當한 現象이라 하겟지만 수出入組合등의 輸出品에 對한 危險分擔制度로서의 存在價値가 認定되고 [illegible]

人絹

輸出「링크」制와 人絹絲에 個人「링크」制, 織物에 團體「링크」制를 採用키로 되엿는데 萬國의 需給과 原料 팔프問題로 然而 綿類 等이 思惑되고 [illegible] 로 前途를 統制에 依하야 最高價格制限, 最低價格의 最少限度價位는 不得已할 것이나 今後 人絹景은 [illegible] 一二個月以內에 先限八十圓臺로 막개일것이다

는 程度로 市場이 制限되는 今日까지 問題視되며 米棉의 植付反別公表를 기다리고 잇는 모양이나 今後의 綿絲市勢는 棉만을 올릴 수 업게 되엿다 今週間은 當限二百七十七圓 先限二百圓을 高價로 原棉高에 依하야 膨脹되엇고 週末은 當限二百圓 丁으로 百九十八圓九十錢 先限百九十一圓이엇다

生絲

不可避로 보는 形勢이엇다 今週中은 九十圓割로 當限八十九圓七十錢 先限八十八圓五十圓으로 低落不勢이엇고 週末은 當限八十六圓臺 先限도 六圓臺이엇다

好材料 輸轉로 一路上進하야 前週初限八百四圓을 突破하야 前月初보다 百圓乃至百二、四十圓高騰된 生絲는 唱價高로 當限八百圓中心往來의 波瀾이다가 八日은 當限七百六十三圓 先限七百五十六圓에 反落되엇고 週末은 當限七百六十一圓 先限七百五十一圓이엇는데 絹絲人絹等他纖維가 統制에서 呻吟하는 이때 生絲만은 統制外에 잇서 原料로부터 製品에 至하기까지 統制商品이 오로지 海外에 輸出하는 國際商品임으로 米國事情好化와 相俟하야 當地的으로 米國自體는 購力이 常하고 絲價도 堅調로 볼수

「棉花統制料」로

栽培助成財團基金

輸入棉花統制에 依한 棉花統制料에 對하야는 當者 朝鮮産棉花에 對하야도 徵收한 後 다시 朝鮮側에 還元하기로 決定되엿는데 六月까지의 朝鮮産棉花統制料는 約六十萬圓에 達하야 棉花同業會에서는 그것을 受取하기爲하야 農務課 千田技師가 七日大阪에 出發하엿다 그리고 其生産者還元方法에 對하야는 農務課에서 硏究中이엇든바 棉花栽培의 助成財團의 基金으로 하기로 內定한 모양이라 한다

日銀金融懇談會

朝銀에서 金子理事出席

日銀의 金融懇談會는 本月中旬開催할 豫定인데 前回부터 새로 殖銀의 今般에는 林頭取가 出席하지 안코 金子理事(東京駐在)가 出席할 터이라하며 또 鮮銀에서는 公森總裁가 出席한다고

貿易實務講習會

京城商工會議所에서는 八日役員會議結果 貿易實務講習會開催의 件을 如左히 決定하엿다

主催 京城商工會議所

場所 同所第二會議室

日時 昭和十三年八月二日부터 五日까지 每日午後七時에서 十時까지

聽講者 京城府內의 貿易業者도 는 從業員 五十名

講師及講義內容

▲朝鮮의 物産과 海外貿易 澁谷朝鮮貿易副會長

▲戰時體制下의 朝鮮貿易 山本本府商工課事務官

인 措置는 必要하지안코 常分間은 從來의 混紡令으로 足하다고 보인다고한다

▲輸出入通關手續一般 工藤朝鮮貿易理事

産業轉換座談會

平和産業에서 軍需産業으로의 轉換期에 잇서서 京城에서는 그 對策을 硏究할 必要가 痛感되여 京城府商工課에서는 九日 午後二時부터 同課會議室에서 時局産業轉換座談會를 開催하고 主로 工業轉換에 잇서서 指導的地位에 잇는 者의 參考를 求하야 遞信省嘱託 服部東一氏를 中心으로 座談會를 開催하엿다

▲輸出荷爲替와信用狀 大村朝鮮銀行支配人代理

▲海上保險과荷造 堀朝鮮運京城支店長

▲貿易事務一般 三井物産京城支店長代理

今日財界日九

◆米	今日前場	比前日	前日
仁川期米先限	[illegible]	不變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一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白米百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一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고무FAQ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	今日前場	比前日	前日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이것을 前年度中에 比較하면 一萬九千九百九十八圓을 激增하고 잇다 또其輸出國別의 主要한 것은 如左하다

滿洲國	六〇、三〇五
亞米利加合衆國	四、九三二
中華民國	四、一九二
香港	一、五一〇
海峽植民地	一、二五一

今日의市勢(九日)

株式 底不知의 飛落

前場飛崩

昨後場大引에 利喰及戾이엇스나 物價取締再强化의 慘憺한 條項이 未滿整發表는 人氣를 더욱 萎縮시키여 外電反落과 相俟하야 東新百二十九圓二十錢 一圓二低 鐘紡二百九圓丁인데 二圓低로 再落落付後 休日을 앞두고 突込과 投物이 山積하야 東新七圓八 鐘紡五圓八에 又復新低價로 飛崩되고 大新四圓五 滿業五圓一 朝新四圓二에 떠러젓스며 後場은 例休

鐘紡慘落

株式은 前日諸物價의 消費制限强化로 鐘紡株를 中心하야 花形株는 一齊히 惡化되엿는데 九日에는 諸經濟統制의 去益濃厚에 對한 悲觀과 金現送說을 織込하야 一層惡化되고 鐘紡은 二百五圓台로 陷落 東新도 百二十七圓台로 暴落되어 慘憺한 場面을 보이엇는바 어市場은 二一六事件發生當時의 市勢와 가티 目前强材料 皆無로 一段의 低價가 豫想된다 紡績人絹株는 이에 刺戟되여 一齊軟化되엿스나 軍需株만은 獨頑强이엇다

買方全敗

거의 再起難

入超二億

【東京電話同盟】七月上旬의 我國對外貿易概算額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輸出	六六、九三二
輸入	七四、二〇一
合計	一四一、一三三
入超	七、二六九
一月以降入超累計	二〇二、六八〇

外國小包郵便

朝鮮郵便局所取扱 昭和十二年度中의 輸出數는 七萬三千七百廿八個인데

市場小感

(株)…잇빠진 시루에 불붓기로 新低價로 漸落而已▲今朝東新은 昨日低價를 十錢下廻해 곳뿐이나 鐘紡은 二百五圓臺로 續崩 얼마나 떠러지라노▲어떤사람말하되 차라리 三三十圓식 한꺼번에 떠러지면 反撥도 잇슬려만은 現實市勢이니 손을 대일수 업다고▲各商品市場이 生絲만 내노코 直接統制一色인데 株式만 投機를 許할 理無▲間接的統制에서 正面으로 株式市場의 革命을 이르킬 政策

(米)…今年은 三月이 天井? 今年은 三月이 天井? 今四、五個月을 두고 保合으로終始▲九限은 本格的天災戰에 入하엿지만은 水害로 甘雨도 一向不應하고 不伸不押으로 全然休戰狀態▲要하면 政府가 諸物價抑制政策을 實施하고 잇스니 살만의 軍獨高를 示하지 못하는 모양갓고 反映으로 容易히 滑落을 許할 지도 못함은 農家의 實情으로 田舍이엇다▲政府와 農家의 態度가 서로 背馳되는 모양이나 其實 政府는 農民을 擁護하야 米價의 暴落도 放任하지 안할 것을 亦可期▲그러면 米價는 暴騰도 暴落도 업시 水平線으로 나갈 모양?

發表될 것도 觀測되는 바 이오 기우는 買方은 더욱 賣人氣를 餘儀하게 되어 買方은 全敗이며 戰局長期化로 買方은 再起難 이에 刺戟되어 一齊軟化되엿스나 軍需株만은 獨頑强이엇다

國債閑散

【東京電話同盟】依然

人絹의「링크」制는 絲使用人氣惡化로 人絹株에 對한 人氣萎縮의 一大原因이 되고 人絹株의 前途

人絹株로서의 前途는 樂觀하기 어렵다 [illegible]

人絹株의 前途

[illegible]

期米 保合

難伸難押

前場低迷

今朝亦雨天으로 阪地初付三十五圓十二錢인 八丁反落을 接하고 當三十二圓二十錢 인 六丁低中二圓四十五錢인 三十二圓五十錢인 六丁低로 先限은 三十二圓四十五錢인 三丁低로 寄合을 給한後 阪地二節二十一錢으로 突返하야 二十錢中心으로 保合하다 딸아 二節五十四錢으로 五十一、三錢을 다투다가 結局阪止十七錢에 反馳되엿스나 五十三錢에 底堅止場하고 後場例休

內鮮모다 雨期

關東地方의 洪水를 비롯하야 神戶地方의 大水亂을 일으키엇스나 昨今再次 梅雨에 逆戾하는 天候는 一時晴天을 示하엿섯는 天候는 去六日부터 豪雨를 寫來하기 시작하야 于今까지 雨天을 繼續하는 中이다 要하면 內地는 十用時期가 臨迫하여오는 今日에 旣히 農作物의 被害가 不少한데다가 또降雨를 繼續하는때는 더욱더 稻의 成長에 非常한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當 限 ◆買方

[illegible]

中 限

[illegible]

先 限

[illegible]

方이 서로 對峙하고 잇다

正米 殘米待로 傍觀

京城下押

適雨에다가 內地의 快晴後 十用陽天順調로 市中도 一齊히 先低人氣로 傾하고 겨우 奧地에 下支되어 小弱商狀이나 市勢는 支配할 七月一日現在의 在米發表를 數日後에 앞두고 雙方이 모다 傍觀態度이어서 突込自重되며 殘存米全貌待로 氣迷이어서 市勢도 保合乃至五錢低로 下押이엇다

群山少高

軟化를 豫想햇든 奧地는 도리혀 消費旺盛으로 特殊非常米의 買上說等과 七月一日現在의 殘存米의 激減說을 傳하야 依然人氣는 强硬하야 內注의 照電도 多少잇스나 休日을 압두고 賣需精米側의 當用準備買로 市中人氣도 오래간만에 活況을 呈하야 市勢는 十錢高이엇다

三等三三、〇〇 四等三一、八〇 一等白米 一三、三五

仁川不變

天候는 依然히 不良하야 稻熱病과 蟲害의 念慮는 去益濃厚하게 되여 産地는 繼續하야 强硬을 呈하고 잇스나 나 定期는 依然한 伸惱로서 保合을 繼續하고 잇고 內地入注도 不振이므로 精米側이 모다 高値에는 買傍觀이여서 賣買도 閑散하야 唱價도 不變이엇다

⑫三等三二、一〇 四等三一、九〇 一等白米 一三、五〇

高位置의 米價

今年의 淸算市勢는 去三月에 阪地三十五圓八十錢 當地 三十三圓十九錢의 最高價를 보인 後 于今 四個月에 亘하기까지 保合鑛體를 離脫치 못하고 阪地는 三十五圓臺에서 當地는 三十二圓四、五十錢臺에서 不伸不押으로 時日을 彼하고잇다 關東關西의 降雨와 朝鮮南部地方의 降雨에 依한 水害의 念慮로 業界에서는 一般米界에서는 크게 注目을 하고잇다

釜山保合

天候는 霖雨期로 드러가 奧地는 賣物을 감추고 市中도 賣買薄이나 朴組되엿든 內地入注가 겨우 注文을 보게되여 移出側買가 多少出現되나 淸算의 不動과 兼하야 在米發表待로 市勢도 前價同樣이엇다

⑫穀良三等三一、七〇 四等三一、九〇 銀坊主 三等三二、二〇 四等三一、七〇 多摩錦 三等三二、五〇 一等白米 一四、二三、七〇 ⑫ 一三、六五

木浦不動

新動議待인때에 米의 殘存米發表는 드디여 日로 接近되여 休日을 압두고 市中人氣는 조곰 明朗해젓스나 賣材無類의 好順으로 買氣가 躊躇되여 市勢도 前値同樣으로 不動이엇다

銀坊主 三等 三二、四〇 四等 三二、〇〇 一等白米 一二、九五

大邱膠着

關西의 洪水市勢 凶作人氣에 刺戟을 주지못하고 도리혀 朝鮮內의 順調好稱하야 時期尙早關係로 各地淸算의 伸惱로 蔞縮의 度量加하야 積極味가 업고 休日을 앞두고 當用準備買가 少量으로 敢買見送으로 市勢도 前價同樣이엇다

⑫穀良三等三二、〇〇 四等三一、八〇 一等白米 一三、三五

海外經濟 八日

銀行券 八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 手形交換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鰯油粕 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穀雜◆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主要取組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各地期米◆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生絲

◆橫濱生糸◆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東城物價(九日)

[illegible]

期米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京城 金益證券 仁川 益康 益

重石高價買入 東明商會 京城府鍾路二丁目一四 電話光化門③九七六番